



메디케어 3면 메디케어 파트 C 변경 기간 3월 31일까지	주택구입 8면 핫한 주택 시장, 집 사려면 사전 용자 승인 유리	소셜 연금 11면 소셜 연금 2024년 완전 고갈... 해결책 없나	노후 13면 은퇴 자금 모았 다면 첫째 3.3% 찾아 써라	건강 24면 노안 시력 감퇴 '구기자 열매' 먹여라	US메트로뉴스
--	---	---	--	--	---------



나의 인생 이야기

인생 2모작

연방정부 세관국경국 유진 김

미군 복무 25년, 제대 후 연방정부 세관국경국(CBP) 14년째 재직 중.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미 육군 모병관으로 많은 한인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마련해준 유진 김 씨의 이력이다. 화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 들어 은퇴에 내몰리는 나이 든 직장인들에게는 꿈 같은 '엘리트 코스'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모병관으로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할 때부터 기자와 친분을 쌓았던 그를 우연히 만났다. 제대 후 연락이 끊긴 지 14년 만이다. 20년 만기제대에 5년 추가 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미국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CBP에서 또 다른 '인생 2모작' 을 일구고 있다.

그는 모병관 시절부터 '군 예찬론' 자다. 군이 주는 각종 기회와 혜택은 비교할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의 세 아들 중 2명도 군인이다. 모두 공군 IT 병과로 둘째는 지난달 예편해 군 병과를 살려 국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다. 셋째는 아직 현역 근무 중이다. 군인 가족이다.



27면에 계속

코비드 19가 지구촌을 강타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확실한 꼬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까지 등장해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오리지널 바이러스, 강력한 델타 변종에 이은 전염력 높은 오미크론과 이보다 한 술 더 뜬 오미크론 하위 변종까지 검출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지루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심한 하위 변종은 미국을 비롯해 이미 세계 49개국에서 검출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발견된 지 2개월만에 10%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 이 신종 오미크론은 PCR 검사에도 구별되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 이라고도 불린다.

아직 이 변종의 병증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스파이크 단백질 절반 이상에서 변이가 생겨 전염이 오미크론에 비해 1.5배 빠르고 자칫 중증을 유발할 수

Cover story 코비드 19

변종에 하위 변종 나오지만 유럽선 경기 부양 위해 개방 시작 스스로 격리, 방역 조치 최우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일부 국가들은 연일 20만 명 이상이 감염되는 가운데에도 나이트클럽 등의 영업을 재개하며 봉쇄 조치를 크게 완화하기 시작했다. 덴마크는 2월 1일부터 마스크 해제 등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코비드 19 확산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연 것이다. 일단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그렇다면 언제쯤이나 이 길고 지루한 팬데

믹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 보지만 현대 의학으로는 이렇다할 시원한 답변이 나오질 않고 있다.

영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비드 19 감염자 중 3분의 2는 재감염이라며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1월초 팬데믹 감염자수가 하루 100만건을 넘어서고 사망자수도 델타를 넘어서는 급박한 상황까지 몰렸다. 하지만 1월말 현재 50만건으로 감염자 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상황이다. 주민들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상 복귀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외출을 꺼려해 거리가 한산하고 식당 등의 매장 타격이 심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20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nleegallery.com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김연신의 영어 한마디	28
정대용 변호사	29
홍지는 기자의 웰빙이야기	30
酒史(주사) 이야기	31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32-33
김동희 칼럼	38



메이저 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시니어 배우
이순재

건강을 지키자!

치과

침술

안경

보청기

일반의약품
(OTC)

해외 여행시
응급치료

차량
제공

발기부전
치료제

기타
다양한
혜택

운동시설
이용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시는
어르신들은 걱정없습니다!**

Medi-Cal과 메디케어 둘 다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1년 내내 언제든지**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변경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 혜택은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 및 가입 전에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십시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TEL 213.389.0077 • 800.611.9862

메디케어 파트 C 변경 기간 3월 31일까지

AEP 이외 또 한 차례 바꿀 수 있는 기회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파트 C로 전환 안 돼 현재 플랜 불만 있다면 다른 플랜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불리는 파트 C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에 있을 정기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AEP: 10월 15일~12월 7일)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차례 더 변경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오픈 가입 기간 즉, OEP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연말 AEP 기간에 메디케어를 변경했을 것이다. 그런데 바꾼 플랜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또 질문을 해도 시원치 않은 대답만 돌아온다. 또 혜택도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고 비용 부담도 예상외로 많다.

이런 경우 한 차례 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OEP다. 물론 연말 AEP 기간에 변경하지 않았던 메디케어 가입자도 다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이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메디케어 파트 C나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인 파트 D만 바꿀 수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이 파트 C로 바꿀 수는 없다. 기회는 단 한 차례뿐이다. 일단 플랜을 바꾸면 연말까지 변경하지 못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바꾸려는 이유 있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올해 2,950만 명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690만 명 보다 300만 명 가량 늘어난 예상치다.

이들 중 일부는 복용 약 혜택, 네트워크 내 제한된 의사 등등 다양한 이유로 플랜을 변경할 것이다.

또 보험료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플랜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의 금액도 나중에야 확인하고 후회 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혜택과 비용이 변한다. 특히 약값 차이는 의료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지난해 커버했던 복용 약 가격이 올해는 경중 뛰어 지난해의 2배 또는 3배로 올랐을 수도 있다.

파트 C 플랜 보험료

파트 C 플랜도 보험료를 낸다. 다행히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판매되는 파트 C는 보험료 '0' 플랜이 많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받는 플랜도 있다. CMS에 따르면 올해 평균 보험료는 19달러로 지난해 21.22달러보다 줄어 들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파트 C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한다. 보험료가 없다고 파트 B 보험료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정부로부터 파트 B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는 에이전트에게 항의하는 곤란한 상황도 있다.

파트 C는 연방정부 의뢰로 일반 보험회사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 파트 D 플랜을 제공할 수도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은 치과, 안경, 보청기 등의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파트 C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파트 A(병원)와 파트 B(의료)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파트 B 보험료(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A 보험료)를 내야 파트 C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꿀 플랜 결정하기

바꿀 파트 C 플랜을 결정하려면 우선 혜택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정기 약 처방 받아 복용한다면 여기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이 보험료 환불이나 추가 혜택만 보고 플랜을 결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 물론 치과나 안경, 보청기 등 추가 혜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 이런 혜택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파트 C가 제공하는 연간 가입자 자기 부담(out-of-pocket)금도 중요하다. 어떤 플랜은 보험료를 받고 자기 부담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또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도 낮춰주는 플랜도 있다.

하지만 LA, 오렌지카운티 등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 밀집 지역에는 보험료도 없고 연간 자기 부담금도 1,000달러 이하로 낮은 플랜도 많다.

자기 부담금이란 1년에 가입자가 의료비용으로 내는 최대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불해 주는 것이다. 대도시 거주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특전일 수 있다.

미국 전체로 보면 평균 네트워크 내 자기 부담금은 법적으로 7,500달러, 네트워크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면 최고 1만1,3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 또한 LA 등 가입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과 같을 것이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65세의 큰 선물!!

메디케어 신청, 모든플랜 선택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이정인 (213)503-1810

(Jessica J. Kim)

foxrainlady@gmail.com

무료 상담

메디케어, 오리지널, Supplement, PDP(약보험) 메디칼, Extra Help(보조)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플랜



#OG15778

과세

인플레이션 비해 소셜 연금 과세기준은 그대로

올해 주요 과세율 분석

주택 판매 면세금 20여 년째 동결
증여세 면세금 연 1만6,000달러까지
인플레이션 조정 없는 조항 많아 세금 더 내야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6.8%를 기록하더니 12월은 7%로 지난 3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새 차 가격은 11%까지 올랐고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식당은 7.9%나 올랐다. 최저 임금이 오르는 했지만 오른 만큼 모두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에도 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이 14.8%를 기록하던 1981년 법으로 제정돼 세금 항목에도 인플레이션이 적용된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소득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증가하지만 과세 등급은 고정돼 있다. 결국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연방 의회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2년 과세 등급과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 하지만 모든 조항에 다 적용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자와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2가지 세금 항목에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세법에 따라 주택 모기지 이자의 세금 공제는 전체 모기지 부채 75만 달러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상 모기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없다.

또 주택 판매로 인한 세금 공제 역시 1997년 이후 변함없이 독신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요즘처럼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집을 팔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표준 공제 금액(단위: 달러)

세금 보고 형식	공제 금액
독신	1만2,950
부부 공동	2만5,900
세대주	1만9,400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의회가 주택 판매자의 세금 공제 금액을 인플레이션 비율로 조정한다면 개인 41만1,000달러, 부부 82만2,000달러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다. 주 및 지방세 공제다. 현재 공제금은 최대 1만 달러까지이며 또 자본 이득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도 3,000달러로 정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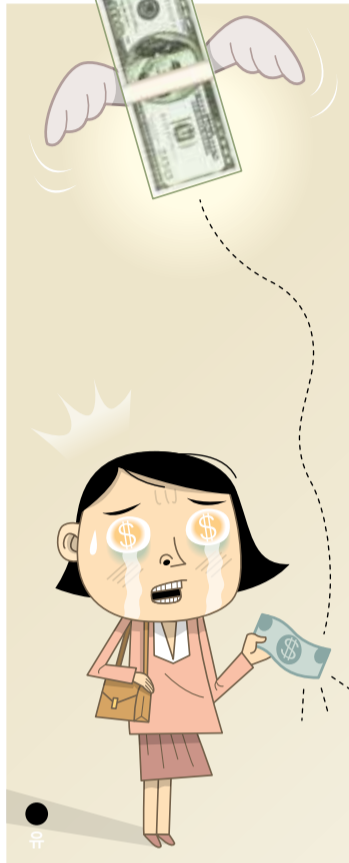
특히 고소득 투자 수익에 대한 3.8% 추가 세율의 한계도 개인 20만 달러, 부부 25만 달러로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힌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요 세금 영향이다.

봉급자

많은 봉급자들의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커티스 타피 미국페이롤협회 회장이 밝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봉급자의 연방 세금 원천공제표의 인상 요인이 3%가량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보다 높아졌다.

연방의회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금 조항에 전통 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고 개정된 지수를



2022년 과세 등급(단위: 달러)

	독신	부부	세대주
10%	0~1만275	0~2만550	0~1만4,650
12%	1만275~4만1,775	2만550~8만3,550	1만4,650~5만5,900
22%	4만1,775~8만9,075	8만3,550~17만8,150	5만5,900~8만9,050
24%	8만9,075~17만50	17만8,150~34만100	8만9,050~17만50
32%	17만50~21만5,950	34만100~43만1,900	17만50~21만5,950
35%	21만5,950~53만9,900	43만1,900~64만7,850	21만5,950~53만9,900
37%	53만9,900 이상	64만7,850 이상	53만9,900 이상

장기 자본이득세 과세 등급(단위: 달러)

	독신	부부	세대주
0%	4만1,675 이하	8만3,350 이하	5만5,800 이하
15%	4만1,676~45만9,750	8만3,351~51만7,200	5만5,800~48만8,500
20%	45만9,750 초과	51만7,200 초과	48만8,500 초과

상속세 및 증여세(단위: 달러)

평생 공제	12,06만(개인)
연간 세금 면세	1만6,000(은퇴 연금 한계)
전통 및 로스 IRA	6,000 / 50세 이상 7,000
401(k)	2만500 / 50세 이상 2만7,000
SEP IRA 또는 솔로 401(k)	6,100 / 솔로 401(k)는 50세 이상 6,500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지수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봉급 인상 비율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연봉 8만 달러를 받고 자녀가 없는 독신 세금 보고자는 2주마다 5달러가 추가로 월급에서 떼어진다. 또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가 20만 달러 이상의 봉급을 받는다면 2주마다 28달러가 추가로 원천징수 된다.

은퇴 구좌 저축자

세금 혜택을 받는 개인 은퇴 플랜 IRA나 직장 플랜 401(k) 등에 저축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과세 등급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혜택을 본다.

따라서 2022년 401(k)년 적립금은 50세 미만 직원의 경우 2021년 1만9,500달러에서 1,000달러가 오른 2

만500달러다. 약 5%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 및 로스 IRA의 적립 한계는 50세 미만인 경우 계속 6,000달러로 지난해와 같다. 이는 임금 인상이 1,000달러가 되기 전까지 한계 금액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소셜 연금은 5.9% 올랐다. 1982년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일부 소셜 연금 수령자의 세금 역시 올라간다. 소셜 연금의 과세 기준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부 수령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셜 연금이 독신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다. 이 금액은 1994년 이후 동일하다. 인플레이션

조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적용된다면 독신 6만2,200달러, 부부 8만400달러 이상이어야만 85% 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2022년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은 6,4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3,000만 명이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내지만 만약 인플레이션 조정을 받았다면 과세 대상은 2,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증여세 면세금

올해 세금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증여금은 1만6,000달러다. 전년에 비해 1,000달러가 늘어났다. 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도 15만9,000달러에서 16만4,000달러로 늘었다. contact@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월 방문자 2만 명 돌파 **US메트로뉴스**
usmetronews.com

US매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워진 처음처럼

더 부드럽지만 더 소주다운 맛

새로운 16.5도와 대관령 기술 암반수로



의약

메디케어, 알츠하이머 억제제 ‘아둘헴’ 임상 환자만 적용

CMS 4월 최종 발표하면 수혜자 대폭 줄어 1년 1만8,200달러로 파트 B 보험료 인상 주요인 일부선 “혜택 축소되면 보험료 내려라” 요구

메디케어 사무국(CMS)은 지난달 논란이 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제 ‘아둘헴’ (Aduhelm)을 승인된 임상 실험 참여 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잠정 결정했다. 최종 결론은 4월에 발표된다.

만약 임상 참여자가 아닐 경우 메디케어에서 약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에서 지불해야 하는 치료제 복용 비용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일각에서는 비싼 ‘아둘헴’ 비용으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170.10달러 크게 인상됐다며 ‘아둘헴’ 복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면 보험료도 인하돼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둘헴’의 1년 복용 비용은 1만8,200달러로 매우 비싸다. 올해 메디케어 보험료 대폭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올해 메디케어 표준 보험료는 170.10달러로 전년의 148.50달러에서 큰 폭 상승했다. 이는 물가 상승 요인도 반영된 것이지만 올해부터 비싼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메디케어에서 지불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앞서 ‘메디케어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 (CMS)는 과학적 증거와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검증해 본 결과, ‘아둘헴’의 잠정적 이

득이 환자의 안전 위험보다 높은지에 대한 중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복용에 따른 효과보다는 안전도가 더 의심스럽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CMS는 무작위 비교 연구에 참여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만 이 약의 복용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리 피셔 CDC 의학 국장은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약 복용의 잠정적 효과와 함께 환자에게 두통, 어지럼증, 낙상,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폐해 역시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CDC의 이날 발표에 대해 ‘아둘헴’ 제작 회사 ‘바이오젠’은 성명을 통해 CDC의 결정은 “매일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환자들을 부정하는 것”이며 임상실험 요구는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환자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CMS의 결정은 이미 FDA가 승인한 약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일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CMS는 FDA가 승인한 거의 모든 약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오고 있다.

새 알츠하이머 약 ‘아둘헴’

FDA는 지난해 6월 18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알츠하이머 억제제



‘아둘헴’을 승인했다. 하지만 당시 효과에 대한 격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특히 75세 여성이 임상 실험에서 뇌부종으로 인해 사망한 이후 논쟁은 더욱 거세졌다.

알츠하이머는 현재 전 세계 3,000만 명이 앓고 있는 치매 병이다.

이 약은 치료제는 아니다. 다만 진행 단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현재 150만 명이 FDA가 승인하는 증상 약화를 완화시키는 복용 조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올 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 튜니스 전 CMS 사무국 연구원은 “향후 3~5년 비교 임상 실험에 참여하는 환자 수천 명만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튜니스 박사는 “FDA가 승인한 조건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이 약을 복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커버를 해주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4월 최종 결정

CMS는 2월 중순까지 공청회를 갖은 후 4월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

정이다. CMS는 현재 임상 실험 중인 유사 약에 대한 사용 여부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연방 의회는 현재 FDA와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밀착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 독립 자문위원회와 고위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FDA가 승인한 이유에 대해 조사중이다.

현재까지 극소수의 환자가 ‘아둘헴’을 사용하고 있다. 환자들은 아두카넘마브라고 불리는 단일항체 클론 ‘아둘헴’을 매달 정기적으로 복용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마운트 사이나이 등 많은 미국 대형 병원은 위험성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알츠하이머 전문가들이 모인 한 단체는 FDA가 이 약 승인을 다시 철회해야 한다고 이들을 위한 공식 청원 제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FDA 스스로도 환자를 돕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신 치료 방법이 거의 없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미확인 의약품을 승인할 수 있는 일명 ‘승인 가속’ 프로그램에 따라 18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FDA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속에서 플라그를 형성하는 아미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줄이는 기능이 이번 승인 가속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알츠하이머 전문의들은 아미로이드가 인지 저하를 줄인다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

했다.

메디케어 보험료 내려야

이번 메디케어의 결정은 연간 비용이 1만8,200달러에 달하는 ‘아둘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대상 환자의 80%는 메디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젠’은 처음 가격을 연 5만 6,000달러로 책정했다가 판매가 저조하자 매달 조금씩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말 메디케어 보험료 책정을 주도하는 보험 계리인(액추어리)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올렸다.

하지만 바이오젠이 가격을 인하하자 알츠하이머 환자 권익 단체들은 CMS에 보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10일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 후생부 장관은 CMS에 보험료 인상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CMS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커버할 약을 결정한다. 하지만 CMS는 기자 회견에서 가격은 약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알츠하이머 협회 등 환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 약의 메디케어 커버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해리 존스 알츠하이머 협회 회장은 설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월 방문자 2만 5천명 돌파

US메트로뉴스

usmetronews.com



멋진 인생 시니어! 제2의 인생 항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뷰
아름다운 시니어

건강하고 멋진 시니어 인생은 저 이순재와 함께
아름다운 항해로 시작하십시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시니어 분들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니어 배우 이순재

Medi-Cal과 메디케어 둘 다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1년 내내 언제든지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변경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침술

안경

보청기

일반의약품
(OTC)

해외 여행시
응급치료

차량
제공

운동시설
이용

발기부전
치료제

기타
다양한
혜택

어떤 의료 혜택이 있는지 지금 바로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세요.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TEL 213.389.0077 • 800.611.9862

주택

첫 주택 구입자 집사기

요즘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세다. 조만간(3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인 가운데 이자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모기지 신청 거부 건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다소 오른다고 해도 아직 최저 수준인 데다가 주택 수요가 많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려 나선다면 우선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경험 없는 첫 주택 구입자들은 성급하게 집을 구입하려 나섰다. 어려움을 봉착하거나 후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 주택 구입자들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또는 카운티, 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보조, 대출, 그랜트 등등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음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기 전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주택 구입하기

주택 구입은 아메리칸 드림 달성의 상징과도 같다. 또 매년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이기도 하다.

주택 구입에 나서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크레딧 점수를 확인한다. 현금 구입이 아니라면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좋은 이자율을 받으려면 크레딧 점수가 좋아야 한다.

다음은 다운페이먼트가 준비돼 있는지 점검한다. 모기지를 대출받을 때 대부분 일정 비율만큼 다운페이먼트 해야 한다. 20% 이상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모기지 인슈런스를 구입하지 않는다. 또 기타 클로징 비용과 약간의 비상금을 계산해 봐야 한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도 중요하다. 주택은 매우 비싼 투자처다. 오래 살수록 투자 수입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한 1~2년 살고 팔겠다고 집 장사가 아닌 이상 렌트를 하는 편이 좋다.

고정 수입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모기지를 갚아 나가

핫한 주택 시장 집 사려면 사전 용자 승인 유리

이자율 오르지만 아직 낮은 수준
크레딧 점검하고 다운페이먼트 준비
부동산 에이전트 잘 만나는 것도 '복
학군, 범죄 고려 신중하게 선택해야



야하기 때문이다.

크레딧 점검

크레딧 점수가 중요하다. 크레딧 점수는 매달 페이먼트를 제때 낸다면 나쁠 이유가 없다. 페이먼트 기록이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카드빚이 있다면 이것부터 갚는다. 또 신규 카드 신청을 자제한다.

대출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크레딧 점수는 다르다. 일반 모기지 대출(컨벤셔널 론)은 620점 이상 필요하다. 어떤 은행은 660 또는 680점을 요구한다. FHA 용자는 3.5% 다운페이먼트 경우 580점 이상이고 10% 다운페이먼트는 500점이면 된다. VA 용자는 최저 크레딧 점수 기준이 없다. 다만 군 복무자, 전역 군인, 생존 배우자만 대출 가능하다.

USDA(연방 농무부) 대출 역시 크레딧 기준이 없다. 조건은 특정 시골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중·저소득층만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다소간의 크레딧을 요구한다.

예산 세우기

월수입과 지출금을 계산하고 새 주택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본다. 모기지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금 총액이 연 수입의 2~3배가 적당하다. 예를 들어 수입이 연 7만5,000달러라면 모기지는 15만~22만5,000달러가 적정선이다. 또는 월 모기지 페이먼트(원금, 이자, 재산세, 보험)에 월 세금 전 총수입의 25~28% 이하가 좋다. 7만5,000 연봉에 월 6,250달러를 받는다면 모기지 페이먼트는 1,563~1,750달러여야 한다.

다운페이먼트 모으기

다운페이먼트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첫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는다. 이를 모기지라고 한다. 주택 가격의 20% 이하로 다운페이먼트 하면 나머지 대출을 받는 모기지는 PMI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혹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모기지를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모기지 보험이다.

크레딧처럼 용자의 종류에 따라 다운페이먼트 요구 기준이 다르다.

일반 대출(컨벤셔널 론)은 최소 3%, FHA 대출은 3.5%(크레딧 점수 580 이상) 또는 10%(크레딧 점수 500~579), VA 및 USDA 대출은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전 대출 승인받기

집을 사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집을 보러 다니기 전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승인을 받는다. 모기지 은행은 자산, 수입, 크레딧 기록 및 점수를 고려해 이자율과 함께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줄 것이다. 특히 사전 승인을 받아 놓으면 요즘 같이 바이어 경쟁이 심할 때는 남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선정할 수 있다.

여러 회사를 통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주는 곳을 선택한다. 이자율이 좋다면 일정 기간 시장 이자율이 변동해도 변하지 않도록 이자율을 고정시킨다. 이를 '락'이라고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 구하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중개인 면허가 있어야 하고 또 가능하면 서류 작업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에이전트가 좋을 것이다. 중개인을 잘 만나면 맞는 집을 고를 수 있고 또 거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개료는 일정 커미션 또는 판매 가격의 %로 받는다. %는 흥정이 가능하며 보통은 6%로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나눠 갖는다. 이 커미션은 셀러가 낸다.

주택 찾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는다. 질로우와 레드핀 같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서 집을 찾을 수도 있다. 이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우선 가격이다. 크기와 가격대가 과연 자신에게 맞아 페이먼트를 하고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 집의 상태. 수리가 많이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이 든다. 첫 주택 구입자가 집을 구입해 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또 위치다. 지역 학교의 수준, 이웃의 안전도, 생활 스타일 적합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피하기

마음에 든다면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다. 이를 오피라고 하는데 서면으로 해야 하며 많은 주가 표준 오피양식을 요구한다. 오피에는 희망 구입 가격을 포함해 사전 주택 조사 및 감정 등 실시비(Due diligence money), 계약금(Earnest money), 마감일(Closing date) 등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협상 가능하다. 만약 셀러가 오피를 거부한다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NMLS #794513

www.bankofhope.com/mortgage

홈 모기지도,
재용자도,
Bank of Hope 이
잘하네!



홈 모기지도, 재용자도, 빠르면 30일 안에 끝!*

홈 모기지 전문가 – Bank of Hope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당신도, 재용자를 고민하는 당신도,
이제, Bank of Hope 의 홈 모기지 전문가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실력 있는 홈 모기지 전문가들이 빠르면 30일 내에 클로징해 드리는 Bank of Hope 홈 모기지!
홈 모기지도, 재용자도, Bank of Hope 이 잘합니다.

지금 **855-448-8989** 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여
현재 이자율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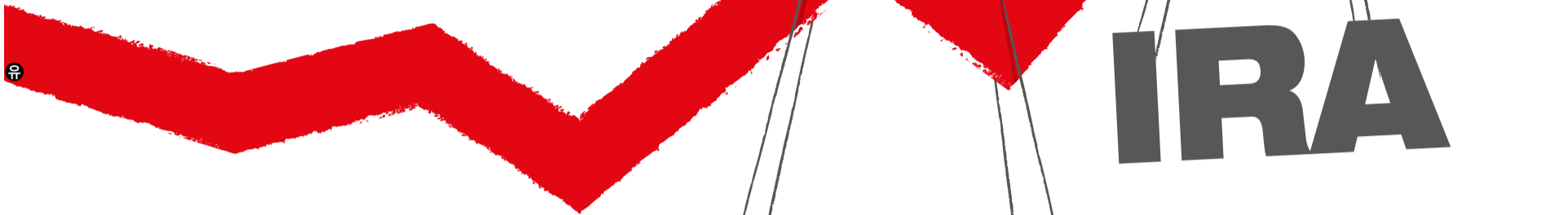
 **Bank of Hope**[®]

Home Mortgage

*30일 마감 기간은 초기의 모든 고지내용과 함께 서명된 대출 신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시작되고, 대출 종료시 종료됩니다. 소비자는 필요한 모든 문서를 요구된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심사 또는 대출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대출을 마감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면제에 대해 DU 승인을 받은 에이전시 론(Agency loans), 최대 2명의 대출 신청자, 각 신청자의 W2 임금 소득, 단독주택(SFR) 또는 PUD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55-448-8989로 문의하십시오.

주식

‘롤러코스트 장세’ 401(k) IRA 손실 조바심 금물



하락 장세 때 현금 인출 자제해야
장기 계획 세우고 주식 채권 분산 투자
은퇴 구좌 인출 없이 버틸 현금 확보

주식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팬데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가 3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자율 인상까지 확실시되면서 주식 시장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은퇴를 눈앞에 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

니어들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은퇴 대비 저축 구좌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다. 열심히 모아 두었던 401(k) 등 직장 은퇴 저축 플랜이나 IRA 등 개인 저축 플랜이 자칫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도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안전 자산 쪽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시니어들도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포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리타 아사프 은퇴부 부사장은 “장기 플랜에 중점을 뒀다”고 조언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냉혹한 마켓 하락은 곧 상승 장세를 이끌게 돼 있다면서 만약 하락세에 겁을 먹고 주식을 팔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 때 재투자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2022년 올바른 은퇴 투자

많은 투자자들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 배운 것이 많았다고 ‘프린스플 파이낸셜 그룹’의 은퇴 투자부 스리 레디 수석 부사장이 밝혔다.

당시 S&P 500 지수는 40~50% 급락했다. 많은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모든 자산을 안전 투자처인머니 마켓 어카운트로 옮겨 놓았다. 더 이상 하락할 위험은 없어졌으므로 시장이 안정되고 다시 상승하면 주식으로 되돌려 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승세로 돌아서 다시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손해 봤던 돈을 되찾을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고 레디 수석 부사장은 말했다. 바닥을 친 후 상승세에 접어들면 이미 다시 투자해도 그동안 잃은 돈을 만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변동이 심한 마켓에서는 스스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장세의 기준을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레디 수석 부사장은 “보상은 위험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포트폴리오 재 할당

채권은 증시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들은 힘들 때 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드 수익률이 1~1.5% 또는 이보다 높다고 해도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므로 손해를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아직은 주식과 채권을 골고루 섞는 것이 중요하다.

아사프 부사장은 이상적으로 분산 투자 전략은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소형주와 대형주, 해외 주식, 투자 등급 채권 등에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것 보다 더 높은 주식 할당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사프 부사장은 “포트폴리오가 균형 있게 분산되고 자산 할당이 장기 목표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 예상치 재조정

오는 3월 연방 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올릴 것으로 확실시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 올라가면 명목상의 수익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익은 과거 10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가까운 미래에 더 약화될 수 있다. 레디 수석 부사장은 “장기적으로 아직은 최상의 투자원으로서 주식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보유

하락 장세를 대비해 근간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생활을 한다면 주저앉은 장세에서 투자금을 찾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레디 수석 부사장은 조언했다.

그는 “마켓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시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프 부사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3개월에서 6개월은 필수 목록에 지출할 수 있는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주 확인 금물

마켓 상황이 급락하거나 변동이 심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2~3번 어카운트를 보며 조바심을 낸다고 레디 수석 부사장은 말했다.

그러나 하루에 두세 번씩 들여다본다고 해도 실제 금액은 마켓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401(k) 플랜은 무추얼 펀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하루가 끝이 나아만 실제 잔고를 알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

앞으로 자신에게 맞게 재단된 장기 플랜을 세워야 편안한 마음으로 마켓을 지켜볼 수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전문 재정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아사프 부사장은 조언했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CUCKOO
inspure

마시는 물에서 건강한 물로 쿠쿠 하세요

100°C 끓인 물 정수기

정수기 · 공기청정기 · 비데 ·
마이크로 버블 클렌저 샤워기

구매 및 렌탈에 관한 모든 문의
조엘 이 (213)949-2884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소셜 연금 2024년 완전 고갈... 해결책 없나

근로자 줄어 소셜 기금 충당 어렵고
장수시대로 은퇴자 오랜 기간 연금 받아
이자율 낮아 기금 투자 수익 지지부진
연금 줄이고 연령 올리고 세금 더 걷고
연방의회 해결책 논의 정치 쟁점화 문제

미국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 부분이다. 소셜 연금 기금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장기간 자금 고갈 없이 지속되려면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지, 정책의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등등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셜 연금의 운명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연금 액수가 줄어 들고 또 지급 연령도 크게 축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야후 뉴스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자.

저금리

모든 저축이 그렇듯이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이자율이 주 수입원이다. 소셜 기금은 우리가 일을 해서 번 수입으로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다. 이를 모아 정부는 미국 국채 등 본드와 이자에 의존하는 기타 안정 자산에 투자한다. 주식 등 변화가 심한 투자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많아져 고갈 위험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자율이 수년째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소셜 기금의 투자 이자 수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저리가 계속된다면 소셜 연금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은퇴 생활이 길어져

미국의 기대 수명은 계속 상승한다. 장수 시대에 접어든다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장수는 소셜 연금을 빨리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장수자가 늘어나면 소셜 연금 지불 헛수도 늘어나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끊이지 않는 샘물'은 아니다. 돈이 많이 나갈수록 남아 있는 기금은 점점 말라갈 것이다.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연금 수령

자는 어느 순간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될지 모른다.

은퇴자가 너무 많다

소셜시큐리티는 미국 대공황때 발족됐다. 당시만 해도 세계 2차대전으로 인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탄생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수년 전부터 베이비 부머가 대거 은퇴 대열에 합류했고 소셜 연금 수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은 7,000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루 1만 명씩 은퇴 대열에 합류한다. 이들에게 원래 설계된, 약속된 연금이 지불되려면 지불 공식을 바꿔야 한다. 추가재원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

은퇴자 지탱해줄 근로자가 부족하다

연금 수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꾸로 이들을 먹여 살릴 젊은 근로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 대열에 합류하면서 근로자 대 연금 수혜

자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근로자 3명이 내는 소셜 세금으로 은퇴자 1명의 연금을 지불하는 2.8 비율이었지만 요즘은 2.1로 떨어졌다. 거의 2명이 세금을 내야 은퇴자 1명의 연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계속 떨어지면 또는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해도 소셜 시큐리티는 자금 고갈이 고착화 될 것이다.

부자들이 오래 산다

소셜 시큐리티 재정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장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도 부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많다.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고 또 사무직 직종에서 일을 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평생 번 돈 중에서 가장 많이 번 35년간의 수입을 근거로 하는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수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 액수도 훨씬 더 많다. 이들이 오래 살면 연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기금 소모도 훨씬 더 빨라진

다. 결과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방 준비제도

이자율이 올라가야 소셜 기금의 투자 이자액도 늘어난다고 앞서 설명했다. 하지만 연방준비 제도는 이자율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연방정부가 직접 시중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연방 기준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 금리에 영향을 준다.

연방 준비 제도는 최근 7%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대란 조짐이 보이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올봄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저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가 견잡을 수 없는 물가 인상으로 통화량 옥죄기에 나설 태세다.

경제 성장만큼 기금 확보 안 돼

경제의 고성장은 순수익 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 재무부는 소셜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

혔다. 물론 다소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 재무부는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대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2024년 기금 고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 재난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 상태는 근로자나 비즈니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실업률 문제는 2021년까지 지속됐다. 이는 곧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근로자들의 급여와 페이롤 택스에 의해 충당된다. 하지만 실업률로 인해 이기간 소셜 기금의 수입은 크게 낮아졌다.

궁극적으로 다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팬더믹 기간 중 손해 본 페이롤 택스는 충당될 수 없다.

1960년생 은퇴자 잠정적 문제 노출

1960년생은 2022년부터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62세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셜 연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960년생의 연금은 팬더믹으로 인한 2020년 급여 감소 때문에 연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물론 급여가 줄지 않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앤드류 빅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 상임 연구원은 "소셜 시큐리티국의 측정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평균 임금이 15% 줄었다고 가정하면 1960년 출생 중산층 근로자의 연 은퇴 연금은 13% 감소할 것이고 평생 7만 달러는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지부진한 의회 정책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정치적 불협화음이 차지한다. 의회 지도부는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은 거의 없다. 소셜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 연금 지불금 축소, 페이롤 택스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김정섭 기자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연금

동성애 부부도 사별 배우자 연금 받아

뉴욕타임스, 소송 사례 들어 보도 오래 동거 입증되면 결혼 9개월 이하도 자격 일반 부부처럼 60세부터 신청 가능

요즘은 법이 바뀌어 동성애자도 사별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소셜 시큐리티 사별 배우자 연금(survivor's spouse benefit)은 이성 결혼 배우자에게만 해당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지난 11월 그동안 법원에 계류됐던 동성애 부부 연금 수령 제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동성애 부부에게도 사별 배우자 연금이 지불되기 시작했다.

뉴욕 타임스는 워싱턴주에 사는 헬렌 손턴과 마저리 브라운 동성애 부부의 케이스를 들어 동성애 부부의 사별 생존 배우자 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손턴과 브라운은 1979년 처음 만나 데이트 끝에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올리피아에 공동명의로 대출 받아 집도 샀다. 은행 구좌도 열고 가족 모임과 커뮤니티 행사에도 부부로 참석했다. 출생증명서에 둘의 이름이 부모로 올려진 아들도 키웠다. 은퇴 후 아일랜드에서 카약을 즐기며 여행을 보낸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2003년 브라운은 난소 암 진단을 받았고 손턴의 지극 정성 간호를 받았지만 2006년 50세의 나이에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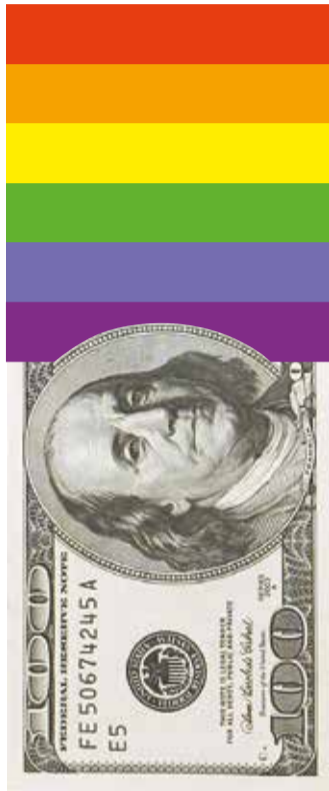
손턴은 소셜 연금 서바이버즈 베니핏(생존 배우자 연금) 신청 자격

이 시작되는 60세인 2015년 부부 공동명의의 집문서와 은행 구좌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했다. 손턴은 사별 배우자 연금은 결혼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어 거부될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결혼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손턴은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주는 2012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2015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손턴은 사별 생존 배우자 연금은 결혼 부부에만 해당되는 정책을 뒤집는 집단 소송을 수년에 걸쳐 제기했다. 지난 11월 소셜시큐리티국은 '손턴 대 소셜 시큐리티국 국장', '엘리 대 사울' 등 2건의 생존 동성애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 맞섰던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심 제소를 취소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이후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이 부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결혼했다는 증명만 확인되면 생존 배우자 연금을 지불하고 있다. 연금 수령 자격의 이같은 변화는 미국 성인 전체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동성 부부 집단을 경제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 시큐리티국에 따르면 전국 6,500만 명의 소셜 연금 수령자의 거의 600만 명이 생존 배우자 연금



(어린이 포함)을 받고 있다.

생존 배우자 연금

생존 배우자 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장애를 갖고 있다면 50부터 가능하다. 숨진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만약 자신의 연금보다 높거나 근로 기록이 없을 경우) 아니면 임시로 숨진 배우자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가 자신의 연금을 나중(70까지)에 바꿔 신청할 수 있다.

평균 생존 배우자 연금은 월 1,467 달러다.

손턴은 처음에는 식품조합에서, 나중에는 극장 등 항상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했다. 에버그린 주립대학의 교직원이었다. 브라운보다 수입이 훨씬 적었다.

손턴은 62세부터 소셜 연금을 신청해야 했고 애완동물 돌보며 원 953달러의 수입으로 빠듯하게 살았다. 캘리포니아 가족 방문을 위한 비

행기 표 구입 조차도 힘들었다.

하지만 손턴의 수입은 소셜 시큐리티국으로부터 생존 배우자 베니핏을 받으면서 월 1,849달러로 뛰어 올랐다. 또 소셜 시큐리티국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7만2,000달러를 소급해 일시불로 지불했다.

죽은 파트너와 결혼하지 못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혼한 파트너들은 생존 배우자 베니핏을 받는다. 자격은 배우자가 숨지기 전 9개월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돼야 하지만 그 이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9개월 자격 기준

앤서니 곤잘레스와 파트너 마크 존슨은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거의 16년간 살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카운티 정부가 동성애자에게도 결혼 증명서를 발행해 결혼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뉴멕시코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런데 존슨은 AIDS에 직장암까지 걸려 2014년 초 호스피스에서 숨졌다. 간병을 했던 곤잘레스는 비영리 단체 회계 업무를 했지만 감원 후 다른 직업을 찾지 못하고 현재는 엄마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60세에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유는 결혼 생활이 9개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6개월이라는 것이다.

곤잘레스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반복 요청을 냈다. 그의 케이스는 2018년 제기된 '엘리 대 사울' 소송

에 해당한다. 생존 배우자 연금 수령 자격은 결혼 생활 9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게이 부부는 동성 결혼 금지법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법이 바뀐 후 결혼 생활 9개월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은 잘못이라는 소송이었다.

결국 소셜 시큐리티국은 규정을 바꿔 현재 66세인 곤잘레스에게 월 1,800달러 생존 배우자 연금을 지불하고 있고 또 그동안 밀린 연금 9만 달러를 일시불로 지불했다. 그는 70세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인한 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공동명의의 은행 구좌, 리스, 모기지, 보험 약관 또는 수혜자나 상속자가 파트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언장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또 연애 편지나 사진, 전서문 등도 있다면 도움이 된다.

동거 커플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소셜 시큐리티국 직원이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혜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인권 단체들은 소셜 시큐리티국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신청자 700명이 거부당했던 엘리 또는 선튼 집단 소송의 참가자들에게 재심을 통보했고 10월까지 100명 이하의 케이스들의 리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은퇴 자금 모았다면 첫째 3.3% 찾아 써라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그동안 모아 왔던 자금을 어떻게 오래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이다. 예전 같으면 은퇴 후 10년 또는 길어야 20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장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모아둔 돈이 '쥐꼬리' 라면 아껴 써야 노년까지 버틸 수 있다.

보통 은퇴 자금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소셜 연금), 어뉴이티(annuity)라고 부르는 은퇴 연금보험과 IRA나 401(k) 또는 펜션 그리고 현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소셜 연금은 신청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일단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부 연금이다. 어뉴이티 역시 약정 금액을 평생 또는 대를 이어받을 수 있는 고정 연금이어서 노년에 고갈될 염려가 없다. 하지만 은퇴를 대비한 투자 플랜이나 현금 등은 자신이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말년까지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통 은퇴 플랜이나 현금은 첫째 4%를 찾아 쓰고 그다음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찾는 금액을 조금씩 조정해야 은퇴 자금을 평생 유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4% 룰'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투자 연구회사인 '모닝스타' 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설로 이어오던 '4% 룰' 을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은퇴 첫째 3.3% 부터 시작해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닝스타는 오랜 관행을 깨고 하향 조정했을까. 앞으로의 투자 시장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1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은 은퇴자가 첫째 3만3,000달러를 찾아 쓰고 매년 4%씩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은퇴자들은 은퇴 2년째에 3만4,320달러, 3년째에 3만5,690달러를 찾아 써야 향후 30년간 은퇴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룰은 1990년대 재정 관리 업계에서 표준 치로 제시됐었다. 그 후 수백만의 은퇴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은퇴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며 가능하면 오랜 기간 자금을 유지해 왔다. 단 조건이 있다. 주식에 50%, 본

향후 경기 전망 불투명에 4% 룰 하향
주식 대 채권 투자 비율 반반씩
노년 빈곤 전략 방지에 초점 맞춰
은퇴 후 수입 구조 살펴 계획 세워야



데 50%를 투자한 경우 이 4% 룰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칙도 앞으로 평균 수익률이 하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닝스타 연구진들은 향후 30년간 미래 투자수익을 계산해 본 결과, 주식과 본드 50%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경우 4%를 유지하면 말년에 모은 돈이 모두 고갈된다는 시뮬레이션이 25%나 됐다.

S&P 500의 가격대비 수익 비율은 23.88이다. 과거 20년 동안 평균 17.35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현재의 마켓 상황이 과대 평가됐다는 증거라고 미국 재정 데이터 연구 회사 '팩트셋' 이 밝혔다. 그만큼 미래 투자 시장 전망이 현재처럼 활황세를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4% 룰의 3.3% 하향 조정에 찬성할까

아니다. 일부는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메리칸 칼리지 재정학과 교수 웨이드 퍼는 이미 2013년 첫째 인출은 2.5%로 낮춰야 30년간 은퇴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과 본드

50 대 50 투자 비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1994년 은퇴 재정 플래너 빌 벤건이 4% 룰을 들고 나올 때도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그는 미래의 투자 시장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다양한 투자를 제시했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은퇴를 늦게 해 30년까지 살 것 같지 않다면 당연히 더 많은 비율로 찾아 써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75세에 은퇴한 부부가 20년을 더 살 것 같다면 첫째 5% 이상을 찾아도 된다.

주식에 더 많이 투자했다. 4% 이상 찾아도 되나

벤건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말한다. 4% 룰은 주식에 50~60% 투자를 전제로 한 수치다.

60% 이상 주식에 투자한다면 시장 상황이 베어마켓으로 하락한다면 손해가 심할 것이고 회복하기도 힘들어진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

벤건은 국제 주식과 미국 내 소형주를 섞는다면 첫째 4.7%를 찾아도 95세까지 건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주식과 미국 대형주, 중형 및

소액주, 공공기업의 최저 가주 등에 각각 11%씩 투자하고 연방 국채에 10%, 나머지는 중기 채권에 투자하라고 제시했다.

어뉴이티는 어떤가. 저축금을 꺼내 투자할 만한가

투자할 만하다. '즉시 연금' (immediate annuities)은 묶 돈을 넣고 즉시 입금 다음 달부터 평생 약속한 돈을 매달 받는다.

오늘 즉시 연금에 1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투자금의 5.6%가량을 매달 받는다. 반대로 30년 국채 수익률은 연 2%다.

하지만 어뉴이티에서 더 많은 돈을 찾으려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매달 지급되는 돈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다. 즉시 연금은 보험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없지만 약속한 금액 이상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은 보험회사가 가져간다.

월 지불금은 평생 보장된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잔금은 보험회사가 갖는다. 만약 남은 돈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사망 지불 조항을 추가하면 되지만 월 지불금이 줄어든다.

소셜 연금 늦춰 받기

은퇴 후 소셜 연금은 최고의 평생 보장 수입이다. 소셜 연금은 또 매년 인플레이션까지 조정돼 지불된다.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만기 은퇴 연령때 받을 약정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받지 않고 미룬다면 매년 8%씩 복리로 70까지 불어난다. 70세에 받는 돈은 62세에 받는 돈의 77%가량 더 많다.

은퇴 구좌의 RMD 찾기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은 72세부터 IRS의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 이 정한 최소 비율 이상의 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최소 인출금(RMD)라고 부른다. 전통 IRA나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72세에는 3.9%를 찾지만 80세에는 5.4% 이상을 찾아야 한다. 거의 4% 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존김기자 john@usmetronews.com

대출

소액 대출로 크레딧도 쌓고 물건도 구입한다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미국인 절반 이상 사용
신용평가 회사들도 관례 깨고 점수 반영
500달러 이하 100달러도 대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Buy Now, Pay Later) 대출이 인기몰이를 하며 온라인 쇼핑을 지배하고 있다. 소액 대출이 가능하고 또 단기간 내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소액 대출 상환 기록을 인정하지 않던 신용 평가 회사들도 점차 크레딧 점수 반영을 시작하고 있다. 크레딧이 없거나 나쁜 소비자들도 크레딧 기록을 쌓을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여러 개의 소액 대출로 소비자 재정과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방 정부 감독기관이 주목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페이 레이터’로 줄여 부르는 이 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소액 대출로도 크레딧 점수를 쌓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소액을 대출받아 물건을 구입하고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지는 일반 크레딧 카드와 비슷하지만 일정 기간 연기될 수도 있다. 또 일찍 상환해도 된다.

현재 어피(Affirm), 애프터페이(Afterpay), 클라나(Klarna)와 같은 재테크 회사들이 기존의 ‘레어웨이’ 플랜을 최신 형태로 개량한 것이다. 대략 60여 개의 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어웨이’ 플랜은 일단 사고 싶은 물건을 정해 놓고 돈을 조금씩 낸 후 완납하면 가져가는 방식이다. 사고 싶은 것만 당장 목돈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요즘 ‘페이 레이터’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주로 소액 상품 즉, 신발, 의료, 공연장 입장권 구입 때 사용된다. 레어웨이와는 달리 소액 대출을 받아 물건을 먼저 갖고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일반 백화점이나 상점 발행 카드와 같은 유사하지만 크레딧 조화가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

사용자는 2~3달 내 최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보통은 이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페이먼트

가 늦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자 없이 일정 기간 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주로 젊은이들, 밀레니얼 세대나 요즘의 Z 세대에 인기가 높다. 나이로 본다면 40대 이하이다. 특히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크레딧 점수를 쌓는 좋은 옵션이 되고 있다.

크레딧 점수 반영

지금까지 이런 소액 대출은 크레딧 신용 평가 회사들에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열심히 갚아도 크레딧 점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대출이 점점 확대되면서 주요 신용 평가회사들도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 회사 ‘에퀴팩스’ (Equifax)는 지난달 중순 이런 대출을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2월부터 소비자 신용도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엑스피리언’ (Experian)은 이미 단기 대출을 포함해 이런 용자 신용 자료를 크레딧 리포트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추가로 반영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랜스 유니온’ (Trans Union)은 이런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리크 페이겔 수석 소비자 대출부 수석 부사장이 밝혔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의 페이먼트 기록이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에퀴팩스’는 ‘페이레이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용자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돈을 갚아 나가 평균 FICO 점수가 13점가량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크레딧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이 대출 방식을 통해 21점이 올랐다. FICO점수는 평균 716점이며 670점 이상이면 ‘ 좋음 ’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대출을 잘 이용한다면 크레딧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국 소비자법률센터의 러렌 샌더스 부회장은 밝혔다.

악성 채납 위험



2~3개월 내 최고 4회 분할 상환 가능

연방정부, 무분별 대출 남발 위험성 조사도

하지만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면 일반 대출이나 크레딧 카드 사용처럼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일부 대출 회사는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고 채납금을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기고 신용평가 회사에도 보고한다.

대표적인 웹사이트 대출 회사 ‘크레딧카르마’ (Credit Karma)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인 성인 절반 가까이 어떤 형태로든 이와 유사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중 3분의 1은 페이먼트를 한차례 이상 내지 못했고 이들 채납자 중 4분의 3은 이로 인해 자신들의 크레딧 점수가 나빠졌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이용자는 500달러 이하의 상품 구입에 이 대출을 이용했고 3분의 1은 100달러 이하였다.

연방 정부 감독 강화

연방 소비자 재정 보호국이 급기야 이런 대출 회사들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지난 12월 중순 보호국은 5개 회사에 3월1일까지 비즈니스 운영 상황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보호국은 이들 회사들이 연휴 쇼핑 기간과 팬데믹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면서 잠정적 혜택과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받은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호국은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쉽다는 이유로 여러 개의 대출을 무분별하게 받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자신의 수준을 넘는 소비를 하게 될 수 있는 위험도 노출된다.

또 이런 회사들은 소비자 보호 권리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호국은 아울러 우려했다. 부당한 요금 부과 또는 문건 하자에 대한 클레임 같은 소비자 보호막이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레이터 대출을 받기 전에 고려할 점

정해진 기간에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만약 여러 개가 대출을 받는다면 상환 스케줄이 모두 다를 것이다. 자칫 신경을 쓰지

않다가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크레딧 점수 FICO사의 그렉 저우스키 대변인은 어떤 종류의 크레딧이든 관계없이 점수를 쌓으려면 “부채를 낮추고 제때 갚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할 상환 기록을 신용평가 회사에 보고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많은 회사들이 단기 ‘페이 레이터’ 대출 상환 기록을 아직 보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 조건 또는 개인 정보 정책에 상세히 적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잘 읽어 봐야 한다. 웹사이트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확인하고 사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 카드는 상환을 정해진 날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나

어떤 크레딧 카드는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간 맞춰 제때 상환한다면 좋은 신용 등급을 쌓을 수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포함해 일부 전통 카드는 요즘 자유롭게 상환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게 옵션도 제공한다. 이런 카드는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여유 자금 있다면 ‘어누이티’ 로 은퇴 수입 늘려라

〈은퇴 저축연금〉

**말년까지 지불되는 고정 수입원
통털 캐어, 생명보험금 지불 옵션도
세금 혜택 많고 적립금 한계 없어
은퇴 저축금 톨오버 시켜 노후 대비 적합**

소셜 연금은 은퇴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소셜 연금만 가지고는 은퇴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없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에 따르면 소셜 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40%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머지 은퇴 후 필요한 경비는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 수입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은퇴를 대비해 모으는 401(k) IRA와 같은 개인 은퇴 플랜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플랜은 은퇴 저축연금이라고 불리는 어누이티다.

소셜 연금의 지속적인 지불이 불안해지는 요즘 은퇴 저축연금 플랜인 ‘어누이티’ (Annuity)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 100살까지 산다면 아마도 가진 돈이 모두 고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자금원이 어누이티 상품이다. 또 은퇴를 하는 시니어들도 어누이티에 가입해 은퇴 수입원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 만한 투자 상품이다.

미래를 위한 보험

자동차나 집 보험처럼 어누이티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보면 된다. 특히 은퇴 저축이 모두 고갈되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보험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누이티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을 제공한다.

어누이티에는 다소간의 비용이 들어간다. 우선 계약 해지 때 비용이 들 것이고 사망 위험에 따른 추가 비용과 행정 관리비가 이에 해당한다. 또 어누이티에 적립된 돈을 모두 찾으려면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누이티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



는 매우 중요한 자금 증식 방법이다.

어누이티는 처음 구입할 때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마치 피자를 주문해 그 위에 원하는 토핑을 별도로 선택 주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생명 보험처럼 사망 지불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숨져도 어누이티 지불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배우자나 가족 등 베니 피셔리(수혜자)에게 지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요즘은 장기 간병

옵션까지 추가한다.

이런 옵션이 추가될 때마다 물론 일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피자 토핑을 늘릴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어누이티를 구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혜택이다. 돈을 찾아 쓸 때까지 불어나는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훨씬 더 빨리 불릴 수 있다.

어누이티의 혜택

▲원금 보장: 변액 어누이티가 아닌 이상, 어떤 경우에서도 원금을 잃을 위험성은 없다. 모든 정액 연금(fixed annuity)는 처음 투자한 금액을 보장받는다. 또 정액 지수 연금(fixed-indexed annuity) 역시 이자율이 크게 떨어져도 원금은 보장된다.

▲평생 수입원: 대부분 어누이티는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약속된 돈을 지불해 준다. 오래 살아 원금이 다 고갈되더라도 약속된 돈은 계속 지불된다. 원금보다 지불금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계약에 따라 가입자의 배우자도 계속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조인트 및 생존자’ 옵션이라고 부른다.

▲유산: 생명보험처럼 사망보험금 옵션을 넣으면 숨진 후 수혜자가 어누이티를 이어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 요즘은 어누이티에도 장기 간병 옵션을 판매한다. 이 옵션을 구입하면 장기 간병이 필요한 시점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장기 간병 비용은 해마다 오른다.

어누이티 세금 혜택

▲장기 간병 세금 혜택: 어누이티의 이자로 장기 간병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사망 시 세금: 과세 유예 대상(qualified)이던 비과세(nonqualified) 대상이던 간에 어누이티를 배우자에게 물려주면 세금이 없다.

▲톨오버: IRA, 401(k), 403(b) 또는 펜션 플랜에서 일시불로 과세 어누이티(qualified annuity)에 톨오버 시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적립금 세금 유예: IRS는 자격 있는 과세 유예 어누이티에 적립하는 돈은 세금 공제해 준다. 세금 공

제 한계는 IRA, 401(k), 403(b), 또는 기타 세금 유예 플랜과 동일하다.

▲교환: 1035 익스체인지로 세금을 낸 수입으로 구입하는 어누이티(non-qualified)를 동일한 어누이티로 바꿀 수 있다. 이자율이 높거나 더 좋은 계약조건의 상품으로 바꿀 때 적용된다.

▲QLAC 가입 시 RMD 유예: 조금 복잡할 수 있다. QLAC는 ‘장수 어누이티’ 라고 부른다. 이 어누이티는 85세까지 IRS가 정한 최소 인출금(RMD) 적용이 연기된다. RMD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하는 은퇴 플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72세부터 일정 비율의 최소 비용을 찾아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찾아야 하는 금액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적립금 한계가 없다: 적립금 한계는 세금 유예 혜택을 받는 은퇴 플랜의 가장 큰 불만 거리 중 하나다. 다시 말해 연간 어카운트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를 두기 때문이

다. IRA를 예로 든다면 연간 6,000달러까지만 적립할 수 있다. 그런데 어누이티에는 이런 적립금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년 원하는 만큼의 돈을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입 연령 제한 없어: 어누이티는 언제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작성해야 하므로 법적 연령인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한선 나이도 상품에 따라 75~95세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면 보험회사에서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분할 페이먼트 가능: 과거에는 한 번에 일시불로 보험금을 내야 어누이티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특히 젊은 세대가 가입한다면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로 여러 차례 돈을 내는 분할 페이먼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면 이를 10년에 걸쳐 수차례 지불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넷킴 기자 janet@usmetronews.com

Lic#9199095

소셜연금 메디케어 건강보험 은퇴플랜

무료

“안내해 드립니다”

김정섭

Wilshire4525@hotmail.com

(323)620-6717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한솔종합보험(주)

US매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미래설계를 위해

힘들게 일한 당신 노후와 미래설계는 누가 해줄까?

일밖에 모르는 당신
일에는 자신 있지만, 노후설계와 자산관리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는 한솔종합보험을 선택했다.
미래와 노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미래설계.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한솔 노후연금 적립 플랜

은행 CD나 일반 MONEY MARKET 저축보다 월등한 EQUITY INDEXED LIFE와 INDEXED ANNUITY를 소개합니다.

- ☑ INDEXED 생명보험으로의 INCOME, ACCUMULATION WITHDRAWAL 등에 대한 TAX-FREE 혜택
- ☑ 높은 INDEXED RATES + 각종 BONUS 제공
- ☑ 더 높은 은퇴연금 수익을 위해 SOCIAL SECURITY + INDEXED ANNUITY + INDEXED LIFE 등의 종합인컴플랜 혜택
- ☑ 종합 주가지수 하락 시에도 적립금 유지되고 상승시에는 MAX CAP까지의 적립금 상승의 2중 혜택
- ☑ 100세 건강장수를 위한 장기 간호케어(LONG TERM CARE) 10년 후 원금 보장이나 적립금의 300% 혜택 (예: \$100,000 적립 시 \$300,000 혜택)
- ☑ 생명 보험금 + 은퇴 연금 + LIVING BENEFITS (CHRONIC 질병/ CRITICAL 질병/ TERMINAL 질병 등)

사망보험금 보장
INDEXED RATES의 은퇴저축
생전 혜택 보장(LIVING BENEFIT)

OR

개인연금(IRA)
회사 연금(SEP IRA & 401K)
ROLL OVER & TAX 유예

OR

목돈 저축(INDEXED ANNUITY)
평생 INCOME
LTC 플랜(300% 혜택이나 10년 후 원금보장)



생명/은퇴연금/Medicare/LTC
한솔종합보험(주)
CA License#0E52100 Since 1977

대표전화
(213) 487-4900 / (800) 300-0703
LA 지점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OC 지점 6301 Beach Blvd. #304, Buena Park CA 90621



윌리엄 황

지난해 연말 중고 자동차 가격 2만9,969달러

반도체 부족으로 고급 차 생산 집중 올해 새 차 중고차 각 5만, 3만 예상 자동차 회사들 이익은 훨씬 늘어

요즘 자동차 구입하기가 겁난다.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개솔린 가격 인상과 함께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더욱 움켜쥐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이유는 2가지다.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어든 데다가 팬데믹으로 인한 새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고객들이 중고 자동차 시장으로 몰리면서 중고 자동차 역시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가격은 새 차나 중고차나 모두 올랐다. 안타깝게도 당분간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 자동차는 줄어들었지만 수입은 더 늘어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각종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 자동차 판매 업체인 '에드먼즈'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2월 판매된 평균 중고차 가격은 2만9,969달러다. 1년 전 2만3,185달러에 비해 무려 30%나 뛰어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의 교과서로 불리는 '켈리 블루 북' (KBB)가 발표한 동기간 판매 자료는 주행거리 6만9,000마일 이상의 평균 중고차 가격은 2만8,105달러다. '에드먼즈'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새 자동차 9개월간 지속 상승

새 자동차 가격은 거의 2배가량 높다.

블루 북 KBB에 따르면 2021년 12월 판매된 새 자동차 가격은 4만 7,077달러로 나타났다. 비싸도 보통 비싼 것이 아니다. 특히 새 자동차 가격은 지난 9개월 동안 매달 최고 점을 찍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B가 자동차 가격을 모니터링한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이런 가격 상승세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를 구입 하겠다고 마음먹은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평균 신규 자동차 구입 가격은 5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고 중고 자동차 역시 3만 달러 선은 넘을 것으로 이

들은 예상했다.

켈리 블루 북의 모회사인 '폭스 자동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찰리 체스브로는 최근 웹캐스트에서 "계속적인 가격 상승은 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변화도 불가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KBB에 따르면 지난 연말인 12월 판매된 새 자동차 가격은 전년 동기 14%인 5,742달러나 올랐다. 전달인 11월에 비해서도 1.7%, 808달러가 오른 가격이다.

평균 중고 자동차 역시 11월에 비해 536달러가 뛰어올랐다고 KBB는 덧붙였다. 이와 비교해 2020년 12월 판매된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2만 1,979달러였다. 다시 말해 1년 전에는 중고 자동차가 무려 6,126달러나 더 싸게 거래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12월 새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실제 딜러에서 제시한 스티커 프라이스보다 900~1,300달러를 웃돈 주고 구입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물가가 7%나 올라 자동차 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 가격 인상을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으로만 보기에선 지나치게 높은 것도 사실이다.

연방 노동통계청이 별도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 자동차와 트럭 가격은 37%나 올랐다.

가격은 왜 오르고 있나

자동차 업계 분석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의 급격한 감소를 들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새 자동차 보다 중고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고차 역시 새 자동차와 같이 공급이 크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 자동차와 중고 자동차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칩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반도체 시장의 파동으로 인해 마이크로 칩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새 자동차 생산 대수가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제작회사들은 싼 가격보다는 가격이 비싼 고급 자동차 제작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가격이 비싼 자동차는 회사들의 제작 마진을 높일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



되는 자동차 대수는 줄었다. 그런데 회사들의 이익은 더 높아지고 있다.

체스브로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가격 인상이 판매 대수 감소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2021년 자동차 업계의 총수입은 6,490억 달러로 2020년에 비해 1,000억 달러나 더 높았고 2019년 보다는 거의 20억 달러가 많았다. 하지만 판매 자동차 수는 2019년보다 200만대가 덜 팔렸다.

체스브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자동차 시장은 셀러스 마켓"이라면서 "자동차 구입자들이 자동차 구입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존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낮은 자동차가 부족해 고객들은 비싼 가격의 자동차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매 가격 역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판매된 새 고급 승용차의 평균 가격은 6만5,000달러에 육박했다. 이에 반해 일반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은 4만3,000달러였다. 평균 가격 상승은 자동차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 테슬라 모터스와 제너럴 모터스 새 자동차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20%나 더 높게 판매됐다.

자동차 공급 부족으로 실제 판매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 치과 혜택 없어

수입 높으면 파트 B, D 보험료 더 내야
치료비 많이 나온다고 메디갭 취소 못 해
치과 서비스 받으려면 파트 C 가입



메디케어 가입자 5가지 궁금증

메디케어는 매우 복잡하다. 종류도 다양하고 또 가입도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가입한 메디케어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만큼 질문도 많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메디케어 관련 대표적 궁금증을 정리한 것이다.

❶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 것이고 앞으로 의료비는 얼마나 오를까?

의료비용은 항상 일반 소비자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높다. 2019년 조사 및 컨설팅 회사 '헬스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간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5~5.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일반 물가 인플레이션이 무려 7%까지 치솟는 상황이므로 의료비 인상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현재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월 보험료는 170.10달러다. 지난해 148.50달러에서 21.60달러나 인상됐다. 메디케어 신탁위원회는 2028년까지 연 평균 5.9%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통 메디케어인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가입하는 메디갭 보험료 역시 6%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의 49%는 파트 B 보험료 이외에 내는 보험료는 없다.

'헬스 뷰'에 따르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부부는 처방전 파트 D와 메디갭 보험료 그리고 다양한 자기 부담금으로 연간 1만500달러를 지불한다. 하지만 20년 후 비용은 연간 3만3,000달러(화폐 가치 조정분)로 예상된다.

❷ 치과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
치과는 예방 건강보험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나쁜 치아 건강과 당뇨 같은 만성 질병, 만성 감염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전체적으로 메디케어 가입자 3분의 2는 치과 보험이 없는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밝혔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 치료 치료를 받는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대부분 치과 치료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또 안경과 보청기 혜택도 없다. 치과는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만 커버된다.

하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대체 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플랜은 일부 치과를 제공해준다. 컨설팅 회사 '아발리 헬스'에 따르면 파트 C 가입자의 90%는 최소한의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60%는 치아 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해 있고 78%는 X 레이와 스케일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치과 보험처럼 파트 C 역시 치과 치료의 제한을 두고 있다.

보청기와 안경 역시 대부분 파트 C 보험에서 커버해 준다.

이런 이유로 요즘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파트 C 보험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치과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치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델타 덴탈 보험 PPO 플랜의 대도시 보험료는 48달러 선이다. 디덕터블은 50달러 내외이고 연 최대 혜택은 1,500달러다.

❸ 올해 보험료 책정은 2020년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올해 은퇴를 하는데 수입이 높아 파트 B 월 보험료가 340.20달러다. 또 파트 D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2022년 수입은 2020년보다 훨씬 낮

수입별 2022년 파트 B 보험료 (단위: 달러)



수입별 2022년 파트 B 보험료 (단위: 달러)	2020년 연 수입 (MAGI 적용)			2022년 보험료
	개인 세금 보고	부부 공동 보고	부부 별도 보고	
9만1,000 이하	18만2,000 이하	9만1,000이하	170.10(표준 보험료)	
9만1,000~11만4,000	18만2,000~22만8,000	해당 사항 없음	238.10	
11만4,000~14만2,000	22만8,000~28만4,000	해당 사항 없음	340.20	
14만2,000~17만0,000	28만4,000~34만0,000	해당 사항 없음	442.30	
17만0,000~50만0,000	34만0,000~75만0,000	9만1,000~40만9,000	544.30	
50만0,000이상	75만0,000 이상	40만9,000이상	578.30	

을 것이다

수입이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는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수입은 2년 전을 기준으로 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약 7%만이 추가 보험료를 낸다. 이를 '소득 관련 월 조정금' (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s·IRMAA)이라고 부른다.

파트 B 보험료는 정부가 내는 1인당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며 고소득자에게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보험료의 35~85%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

IRMAA는 MAGI라고 불리는 변경된 조정 후 총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MAGI는 세금 보고의 AGI에 세금공제 수입을 합친 금액이다. 개인 세금 보고자의 경우 9만1,000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6등으로 나뉘어 578.30달러까지 보험료를 낸다.

많은 은퇴자들은 수입이 줄었는데도 IRMAA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 것에 어리둥절한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2022년 보험료를 2020년 세금보고서를 근거로 책정한다.

만약 수입이 도중에 줄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폼 'SSA-44'를 작성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❹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서 의료비 지불을 거부했다. 이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지난 2019년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부적절하게 가입자의 치료비 청구를 거절하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연방 보건 후생부의 감찰관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진료 거부와 치료비 지불 거부와 관련된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찰관실은 2014~2016년 환자와 병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 건을 조사한 결과, 파트 C 플랜 자체적으로 거부했던 케이스를 다시 뒤집는 것만 75%에 달했다.

하지만 재심 청구 건수는 매우 드물다. 고작 거부 케이스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파트 C 플랜의 의료비 지불 방법은 환자당 정해진 금액을 환불해주는 형식이다. 따라서 플랜은 수

익을 내기 위해 환자의 사전 진료 승인 요청이나 의료진의 비용 청구를 거부하게 된다고 감찰 보고서는 지적했다.

메디케어 홍보 센터의 수석 정책 검사 데이빗 리숄츠는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거부하는 상당수는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며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했다면 거부되지 않는 요청들"이라고 밝혔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조기 병원 퇴원, 전문 요양 시설 입원 또는 재택 간병 거부였다.

❺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메디 갭 보충보험에 가입해 있다. 최근 교통 사고가 나서 수술과 전문 요양 시설 입원, 보조 장비들이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내는 메디갭 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나

다행히도 거부할 수 없다. 어떤 메디갭 보험도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가입을 취소할 수 없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만 취소가 가능하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WINDSOR REALTY
kenparkscore@gmail.com

Lic#01019114

박건우(KEN PARK)
Realtor/Property Manager

Cell: (213)500-5479
Fax: (323)933-1601

BUSINESS · COMMERCIAL · RESIDENTIAL 4465 Wilshire Bl., Suite 101. LA, CA 90010

Since 1988

Olympic Town Flowers

느낌이 있는 꽃집

올림픽 타운 꽃집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 정성껏 전해 드립니다!"

- 결혼꽃, 장례꽃 & 각종 행사꽃 전문
- 실내, 실외 정원 공사 문의 환영
- 과일 바구니, Silk Flower, 플랜트, 플랜트 관리
- 각 나라 및 타주 꽃배달, 꽃꽂이 강습



빨간 장미를 기억하세요~!

US매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323.RED.ROSE (733.7673) 213.480.3102

1101 S. Vermont Ave. #107 L.A., CA 90006 (벨몬트+11가 코너 올림픽 경찰서 앞) Fax:213.480.0234 E-mail : redrose926@hanmail.net (7days Open)

오미크론

오미크론 하위 변종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Cover story 코비드19

미국 포함 유럽, 아시아등 49개국서 발견
전염 속도, 증상 등 실제 파악 어려워 주시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이 세계 곳곳에서 검출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시하고 있다. 이 오미크론 BA.1의 하위 변종 BA.2는 PCR검사로도 잘 구별되지 않아 별써 '스텔스 오미크론' (Stealth Omicron)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WHO는 24일 BA.2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원래 오미크론과 다르다며 두 하위 변종이 면역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병원성에 대한 독립 역할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하위 변종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충분치 않다. 그러나 유럽의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인도 및 기타 49개국에 이어 미국 워싱턴과 보스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절반 이상의 주에서 검출돼 보건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또 이 미국 내 코비드 19 감염자의 10%를 차지하며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 출현 소식이 전해 진지 이틀만인 26일 11건이 검출됐다. 이 중 2건은 샌타클라라에서 발생했다.

워싱턴주 보건국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BA.2 2건이 1월 초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하위 변종은 아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보고됐지만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건국은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BA.1 오미크론 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12월 처음 발견됐고 당시 별써 460건에 달했다. 덴마크에서는 연말 감염자 수의 20%

가 하위 변종이었지만 올해 들어 2주 동안 40%로 늘어났고 지금은 80%로 확산됐다.

미국 CDC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사람을 통해 전파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변종은 사망 위험과 전파력 등 백신 효과에 영향을 준다.

BA.2 감염국

11월 중순 이후 30개국 이상이 국제 코로나바이러스 데이터 공유 플랫폼(GISAID)에 거의 1만5,000건의 BA.2 염기서열을 보고했다. 1월 말까지 미국은 96건을 기록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에서 1월 중순 발생한 코비드 19 중 45%를 차지하고 있고 2주 전보다 20% 증가했다. 현재 80%가 이 하위변종으로 인한 감염이다.

BA.2 역시 변이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중 약 20건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발견되고 있고 원래 오미크론에는 없는 유전 인자도 발견된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병증을 일으키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구별이 어려운 이유는

원래 오미크론은 PCR 검사를 이용해 델타 변종과 쉽게 구별될 수 있었다. 하지만 BA.2는 쉽게 구별되지 않고 마치 델타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혀 검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미크론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PCR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세계 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이 수그러들지는 모르지만 아직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기는 이르다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안소니 파우치 미국 질병 국장은 이미 미국인 대부분이 오미크론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미국인 5명당 1명꼴로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독과감염도 속출하고 있다. 목아픔과 콧물, 코막힘으로 시작하는

오미크론의 증상은 감기와 유사해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생각하고 외출을 하면서 주변 감염이 더욱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CDC는 경고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백신에 부스터샷까지 맞았다면 잠시 스쳐가는 감기 정도에 그친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일부 주 정부는 전면 개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 코비드 증상 원인 밝혀져

당뇨병, 오인 공격, 바이러스 양 등

코비드 감염 후 장기간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장기 코비드 증상에 노출될까.

의학 저널 '셀'에 31일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혈중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하는 RNA의 수치, 체내 조직을 오인 공격하는 자동 항체 여부, 어릴 적 감염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그리고 제2형 당뇨병 등 생물학적 요인이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코비드 19에 감염된 후 2-3개월이 지난 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비드 증상 여부와 원인을 분석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진

단 초기 항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등의 장기 증상 예방 및 처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UC 샌프란시스코의 스티븐 디스 의대 교수는 "장기 코비드를 위한 생물학적 기작을 찾으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는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스웨디시 병원의 '시스템 바이올로지 연구소'를 포함해 여러 대학과 연구 센터의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연구 대상은 2020년과 2021년 초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18~89세 209명이다. 이중 상당수는 연구 참여 병원에 입원했고 일부는 외래 환자로 내원했다. 연구팀은 이들

의 혈액과 코 점액 채취로 진단했고 2-3개월 후에 측정 분석했다. 이들 중 피로와 인지 장애, 호흡 곤란 등을 포함한 장기 코비드와 관련된 총 20여 개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37%는 감염 후 2-3개월이 지났지만 3개 이상의 장기 코비드 증상을 보고했고 24%는 1-2개의 증상이 나타났다. 또 39%는 증상이 없었다. 3개 이상 증상이 지속된 환자의 95%는 앞서 설명한 4개의 요인 중 1-2개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가항체로 장기 코비드 케이스의 2/3를 차지했다.

또 다른 3개의 요인은 1/3에서 관찰됐으며 이외에도 약간명의 환자에서 나타난 기타 요인도 확인됐다.

COVIDTests.gov서 코비드 검사기 무료 배포

한 주소당 4개 주문
검사기 한 달 8개씩
보험사서 구입비 환불

연방정부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즉석 코비드 검사기(rapid test kits)를 무료로 주문 배달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COVIDTests.gov로 하면 되며 한 주소당(거주지만 가

능) 4개까지 무료 주문된다.

주문 후 7~12일 후 배달되며 이름과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예약 관은 컴퓨터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전화 주문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화 1-800-232-0233이다.

한편 약국 또는 온라인에서 간편 테스트기를 구입할 경우 보험 회사에서 한 달 최대 8개까지 구입 비용을 환불해 준다. 환불 방

법은 각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메디케어의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가입자는 각 보험회사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온라인 메디케어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지역 공공 의료 기관(보건소 또는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무료로 테스트기를 받을 수 있다.

목 가려움, 코막힘 콧물 대표적 오미크론 증상

충분한 휴식, 수분 보충하고 운동 자제 감염 속도 빨라 재감염 될 수도

코비드 19에 감염됐다면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

외부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우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중증 가능성이 낮으므로 대부분 집에서 쉬면서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미크론의 증상은 어떻게 발현되고 집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봤다.

코비드 19의 증상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021년 2월 델타 변종이 확산될 때 코비드 증상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열과 오한, 기침, 가쁜 숨,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두통, 후각 및 미각 상실, 목 아픔, 코막힘 또는 콧물, 구토 증상, 설사 등이다.

그러나 코비드 19 감염의 99.5%를 차지하는 오미크론의 증상은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침과 피곤함, 코막힘과 콧물 그리고 목 가려움이나 따끔거림이 주요 증상이다. 코비드 19 종류에 따라 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코비드 19 처치법

의사들은 집에서 요양하며 치료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했다.

▲해열제

두통과 고열, 근육통이 나타나면 해열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 복용하고 상태를 지켜본다. 만약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면 이부프로펜 또는 나프로신(naproxen)과 같은 NSAID를 복용한다.

▲기침약

모든 사람에게 기침이나 콧물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만일 이런 증상이 있다면 기침약과 코막힘을 제거하는 약을 복용한다. 모두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텍스트로메토르판구아이페네신

(로비투신 DM)과 같은 감기약이 기침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또 수다폐드에 들어 있는 수도에피드린은 코막힘을 완화한다.

▲충분한수분

평소에도 수분 보충이 필요하지만 몸이 아프면 더 중요하다. 존홉킨스 의대 아미쉬 아달자 교수는 많은 땀을 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면 특히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보충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과학, 기술, 의학 학회는 남성은 하루 최소 15.5컵의 수분이 필요하며 여성은 11.5컵의 수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음식을 통해서 또는 물을 마시며 수분을 섭취한다. 열은 노란색의 소변 색이 갑자기 짙어진다면 탈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수분 보충을 해야 한다.

▲폭신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또 바이러스 감염 자체로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당연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충분한 수면은 피로감을 줄여주고 증상을 크게 완화시킨다.

▲의사 조언

당뇨나 암 등 모노클론 항체 치료나 항 바이러스제인 팍솔로비드 또는 물니피라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저 질환자는 특히 코비드 19 양성 반응을 받은 후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이나 입술과 손톱이 파래진다면 즉시 의사에 연락한다.

감염 후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양성이다

CDC는 양성 반응 후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자가 격리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열이나 기타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이 지나야 자가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아울러 밝혔다. 특히 CDC는 자가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직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면 계속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여행을 피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금



지하며 마스크를 사용한다.

양성 반응 기간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검사하는 즉석 테스트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면 6~10일은 격리해야 한다. PCR 테스트는 이보다 더 길다. 마운트 사이나이 대학의 이칸 의과대학 알버트 로 파니즈-몬돌피 감염과 조교수는 “수주 또는 수개월간 양성 반응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최장 60일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을 일으키면서 모든 바이러스가 몸속에 머물고 있다면 장기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테스트는 14일을 넘기지 않는다. 만약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아직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이 존재하므로 자가 격리를

계속 해야 한다.

운동해도 좋은가

증상이 경미하면 운동에 대한 욕심이 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절대 공공장소에서 운동을 삼가하라고 조언한다. 외부 전염 때문이다. 7~10일은 운동을 하지 않고 쉬어야 병원균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할 수 있다. 특히 호흡이 가쁜 증상이 있다면 절대 운동하면 안 된다.

충분한 수분 공급과 휴식이 빠른 회복에 중요하다.

재감염 될 수 있나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회복이 됐다면 재감염에 대한 면역이 생겼다고 봐야 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을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밴더빌트 대학의 감염병 및 예방 의

학과 윌리엄스 샤프너 교수는 “우리가 아직 확실히 모른다”면서 “자연 감염이 얼마나 오래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전 델타 변종과 같은 바이러스는 감염 후 회복된 사람에게서 매우 높은 항체가 발견됐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경미하고 빠른 감염 속도는 재감염을 막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항체 생성 시간이 없다. 이로 인해 오미크론이나 다른 변종에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을 맞은 후 돌과 감염된 간호사는 백신만 맞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항체가 형성됐다는 오리건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이는 오미크론 이전에 나온 연구 결과여서 오미크론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영국의 한 연구 보고서는 표본 조사 결과 감염자의 3분의 2는 재감염이라고 밝혔다.

지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들으며

‘고인이 고개를 끄덕 일만한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flulove@yahoo.com

US매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NONGSHIM**[®]

SHIN
SINCE 1986

*Just Act on Your
Spicy Instinct!*



팬더믹 시대 해외 나가려면 **여행자 보험** 가입

여행 지연, 취소 등 상황서 보상
코로나 19 걸렸다면 미국 이송비도 지불
여행 경비 5,000달러에 200~500달러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C는 해외 응급비용 커버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 다니기도 무섭다. 크루즈 내 바이러스 감염으로 운항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연방 정부는 세계 100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부터 계획했던 여행, 또는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여행자 보험(traveler's insurance)이다.

하지만 여행자 보험 고르기가 쉽지 않고 또 약관에 적힌 작은 글씨의 공지 사항을 다 읽기도 힘들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코로나 19 감염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외국 병원에 묵일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또는 방문지의 의무적 자가 격리에 소요되는 호텔비, 또는 비행기 취소로 크루즈를 타지 못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물론 여행 경비와 커버되는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전체 여행 경비의 4~10% 선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방문에 5,000달러 정도 지불한다면 보험은 200~500달러 정도다.

여행 보험 가입자 늘어

미국 여행자 보험 판매 업체 '버크셔 헤서웨이 트래블 프로텍션'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는 대부분 여행에 나설 때 보험을 구입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비해 7% 많아졌다. 또 응급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드젯 어시스턴트'는 지난해 11월 거의 30년 만에 최고의 달을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항공사와 호텔들이 여행자들에게 매우 다양한 환불 정책을 제공한다. '스퀘어마우스' 보험사의 메간 몬츨리프 수석 마케팅 담당자는 "항공사나 호텔들이 환불 서비스를 제

공한다면 꼭 보험에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저가 항공의 싼 티켓을 구입했다면 항공사들은 항공기 변경이나 취소 때 환불이나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별장 렌트는 혜택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현재 건강 보험이 있다면 여행중 발생하는 의료 비용에 대한 약관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해외 여행 중 발생하는 의료 비용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즉 파트 C는 최근 경쟁적으로 해외 여행 중 발생하는 응급 치료 비용을 커버해 주기 시작했다.

대도시에서 판매되는 파트 C 중에는 최대 5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 응급 치료 비용을 커버해 주는 플랜도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있다. 특히 무한 커버해주는 플랜도 판매되고 있으므로 파트 C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에 앞서 약관을 잘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또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과 같은 프리미엄 크레딧 카드도 여행자 보험을 커버해준다.

구입 전 고려해야 할 혜택

여행자 보험은 크게 2가지 혜택으로 나뉜다. 하나는 여행 취소에 따른 비용 환불 혜택과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와 미국으로의 후송을 커버해주는 메디컬 혜택이다.

여기에 부과적으로 가방 분실, 렌터카, 위험한 스포츠도 커버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구태여 이런 혜택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스퀘어마우스' '인슈어마이 트립' (InsureMyTrip), '아디 닷



컴' (Aardy.com)과 같은 곳에서 여행자 보험을 비교 검토해 구입할 수 있다.

-여행 직전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여행 취소 보험에 가입했는데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자연재해, 가족 사망, 또는 기타 주요 사건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면 환불 되지

않은 경비를 대신 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요즘 대부분 여행자 보험은 코로나 19 조항이 있다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커버해 준다. 몬크리프 마케팅 담당자는 "보험회사는 코로나를 기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발이 묶인다면?

의무적 격리로 여행이 중단되거나 늦춰질 때 커버해주는 보험도 있다. 여행 지연(travel delay) 조항이 있다면 격리됐을 때의 음식이나 기타 제반 비용을 커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 방해 조항은 다음 스케줄로 가지 못할 경우 환불되지 않는 비용을 대신 보상해 준다. 작은 비용으로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 비용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00달러 호텔에 머문다면 2,000달러가 아니라 최고 7,000달러까지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치료가 걱정된다면? '메디젯' (Medijet), 또는 '코박글로벌' (Covac Global)과 같이 미국으로의 귀국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200달러 이하이다. 중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 미국 병원까지 이송해 준다.

팬더믹에 특화로 설립된 '코박글로벌'은 유일하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코로나 환자를 이송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 15일 여행에 745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경 통과 정책이 바뀌어 발이 묶인다면?

대부분의 보험은 특별한 상황에만 혜택을 준다. 국경이 곧 폐쇄될 것이라는 정도로는 커버해 주지 않는다. 또 여행지에서 코로나 감염 비율이 급속히 높아졌다고 해도 커버가 되지 않는다.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이유로도 취소되면 혜택 제공' (CFAR) 조항을 넣는다면 커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넣으면 보험료는 40%~50% 오른다.

주의해야 할 점은 CFAR보험은 여행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100% 커버해주지는 않고 최고 75%까지 평균 50% 정도만 미환불 비용을 보상해 준다.

-자동차 여행 보험도 있나?

예전에는 자동차 여행자 보험은 없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자동차 여행이 크게 늘어나자 '버크셔 헤서웨이 트래블 프로텍션' 보험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호텔비, 관광지 입장료, 또는 의료비용 등 환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상한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건강

노안 시력 감퇴 막으려면 ‘구기자 열매’ 먹어라

보호 색소 밀도 증가 시켜 눈 보호 계란노른자, 호박, 시금치 등도 효과

시력을 잃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역시 나이로 인한 시력 감퇴(AMD)다.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충분한 영양 공급만 해준다면 늦출 수는 있다.

최근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고지베리(goji berry)로 불리는 구기자 열매가 시력 저하를 막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45~65세 연령의 건강한 13명에게 건조된 구기자 열매를 3개월 동안 주당 5차례씩 먹도록 하는 한편 14명에게는 동기간 중 눈 건강에 좋다는 시중 판매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했다.

이후 연구팀은 연구 시작을 전후 해 눈에 축적되는 보호 색소의 밀도를 비교한 결과 구기자 열매를 먹은 그룹에서만 밀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양 보충제 섭취 그룹에서는 어떤 진전도 없었다.

눈 건강은 ‘루테인’과 ‘지아산틴’이라는 2가지 물질이 주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를 이끈 UC 데이비스의 영양 생물학과 시야리 박사는 구기자 열매에 많은 이들 두 물질이 AMD와 관련된 안과 질환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물질은 눈의 자외선 차

단제와 같다”면서 “동공에 많은 양이 분포되면 보호가 더 잘되며 AMD 초기 단계뿐 아니라 눈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외부의 청색광을 차단해 주고 항산화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는 것이다.

건조된 구기자의 혜택 중 하나는 소량을 먹어도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점이다.

리 박사는 이들 물질은 소량으로 효과가 나타나며 금방 생물학적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소화기 흡수가 매우 잘 되고 또 체내에서 이를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조 구기자 열매를 구입하기 힘들거나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영국 안과 학회지에 실린 최근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꼭 구기자가 아니더라도 이들 루테인과 ‘지아산틴’ 물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이다.

계란 노른자, 옥수수, 오렌지색 벨 pepper, 시금치, 애호박과 다양한 종류의 호박류에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함유돼 있다고 연구 논문은 밝혔다.

리 박사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든



지 간에 나 이 가 들수록 좋은 영양 섭취로 눈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AMD는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다. 하지만 점차 얼굴 인식이나 읽는 능력이 감소하고 시각 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리 박사는 덧붙였다.
자넷김기자



눈을 보면 사람의 건강 상태 알 수 있어

“실제 나이와 눈 나이의 차이 클수록 사망률 높아진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한다. 영혼이 맑으면 눈도 맑을 것이고 영혼이 어두우면 눈도 어둡다는 의미로 많은 성현들이 자주 눈을 마음의 거울로 표현한다. 성경에도 나와 있다.

흔히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거짓말을 하면 눈빛부터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눈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돋보기 같은 존재라는 말이다.

그런데 눈은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기도 한다.

건조한 눈은 루마티스 관절염의 증후이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

으면 홍채라고 불리는 눈의 색 부분 주위에 흰색 또는 회색, 푸른색의 고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홍체에 구리빛 황금 고리가 생기면 구리가 뇌나 간 기타 장기에 서서히 축적되는 희귀 유전 질환인 윌슨 병의 신호로 본다. 또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암은 물론이고 녹내장과 나이와 관련된 시력감퇴로 인한 신경 손상이 동공 뒤쪽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눈의 동공은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멜번 대학의 눈 연구센터의 안과 역학과 교수인 민구양 히 박사는 그의 최근 연구 논문에서 “망막은 증가하는 사망 위험과 관련된 체내 혈관 및 신경학적 질병의 병리학 적 진행을 평가할 수 있는 독특한 접근 가능한 ‘창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 보고서는 지난달 중순 발간된 ‘영국 안과 학회지’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영국인 40~69세 참가자 50여만 명을 연구하는 영국 ‘바이오뱅크’의 13만 개 이상의 동공 이미지를 분석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딥러닝을 사용해 눈의 실제 생물

학적 건강과 개인의 나이 사이에 나타나는 ‘동공 연령’의 차이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눈을 통해 개인의 실제 나이와 생물학적 연령 사이의 차이는 매년 사망의 위험을 2%가량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공으로 측정된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가 3년, 5년, 10년으로 늘어나면 특별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67%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고혈압이나 체중, 흡연 등 다른 생활 습관과 같은 기타 요인을 제외한다고 해도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미국 안과학회 임상 대변인인 수니가

그 필라델피아 윌스 안과 병원의 안과 전문의는 “인공지능 딥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컴퓨터가 동공의 컬러 사진으로 환자의 나이를 매우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 알고리즘 작업은 임상으로서 성인과 어린이의 차이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70대와 80대를 구별할 수는 없는 정도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넷김기자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미주 한인보험전문인협회 회원사
 CA License No. 0E81053
 한인의류협회(KAMA) 공식지정 보험사
 한인원단협회(KATA) 공식지정 보험사
 한인호텔협회(KOAHA) 공식지정 보험사
 상사지사협의회(KITA) 특별회원



걱정고세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역시 가족의 건강, 사업체의 안전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필요합니다.

답은 캘코보험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캘코보험


캘코보험
 CAL-KOR Insurance
 3200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무료상담 (213) 387-5000
www.calkor.com
 **Youtube 검색** 캘코TV

건강

물 마시고, 콩 먹고, 소식하며 친구들과 대화하라

세계 5대 장수마을의 10계명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고
고기는 주 1회면 충분
가족 친구와 교제하고 돕기
자주 걷고 자전거 타기

미국의 기대 수명이 79세를 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또 산다고 해도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걱정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아마 인간의 무한한 과제일 것이다.

‘블루 존’ 철학을 펴낸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이자 에미 상 수상 언론인 댄 브에트너의 아이디어를 빌려 보자. 그는 세계 장수 마을 5곳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블루 존’ 장수마을은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스 이카리아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이다.

이 장수 마을 블루 존 개념은 역동적인 생활 습관에 더 초점을 맞춘다. 저자가 이곳 장수 마을을 방문해 공통점을 찾아 장수의 비결을 알려준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들이다. 장수 마을이다.

어디를 가나 물을 소지한다

수분은 뇌부터 심장, 관절까지 많은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를 가더라도 재생 가능한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마신다. ‘블루 존’ 과 인터뷰한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제7 안식일 교회 멤버인 엘스위스 워햄(98) 은퇴 의사는 산책할 때면 급수 시설을 지날 때마다 병에 물을 채우고 마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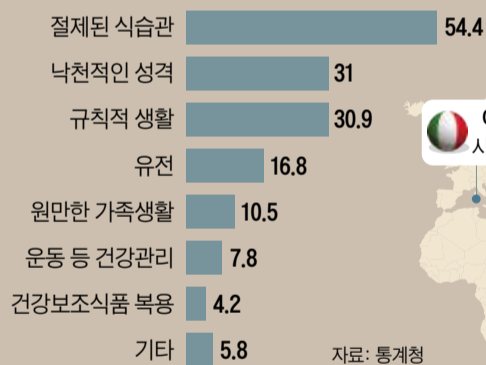
과식하지 않는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100세 넘는 여성들이 많다. 이 여성들의 특징은 과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키나와에는 속담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다. “하라 하치 부”,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포만



100세 이상 인구의 장수비결(단위: %)



세계 장수 마을 5곳(블루 존)

※10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많은 지역



감을 느끼기 전 80%만 먹는다.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위는 충분히 음식을 먹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뇌에 전달한다. 하지만 뇌까지 전달하려면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허기가 면해지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배부르다고 느낄 정도가 된다면 이미 과식을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견과류를 먹는다

장수 마을의 공통점 중 하나는 견과류다. 맛도 맛있지만 견과류에는 유익한 지방과 섬유질, 영양분으로 가득하다. 특히 심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심장병은 미국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면 심장에 매우 좋다.

콩류를 매일 먹는다

장수마을 모두 육식을 자주 접하지 않고 채식에 중점을 둔 식단을 선호한다. 대신 단백질은 콩을 통해 섭취한다. 검은콩, 렌틸스 콩, 중동식 후머스, 또는 두부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한다.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한 노년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듬뿍 함유한 음식이 콩이다. 가격도 저렴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걷는다

매일 활동을 격하지 않은 운동으로 채운다. 정원을 가꾸거나 가축을 기르고 또 걸어서 일을 보러 다닌다.

횟수는 주 1회 정도이지만 먹는 양도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적은 소식이다. 육식을 주로 한다면 서서히 양을 줄이고 채식을 점차 늘린다. 장수 비결이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

사회 활동은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한다. 오키나와에서는 어릴 때 친구가 평생 간다는 ‘모아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 평생 함께하며 희망과 도전을 공유하고 배우는 공동체다. 가까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라. 동네 식당의 해피아워가 될 수도 있다. 또 같이 산책도 좋다. 정기적으로 만나기 힘들다면 화상 통화도 좋다. 혼자 머물지 말아라.

취미를 갖는다

장수 마을 사람들 모두 취미 생활을 하거나 특별한 목적의 외부 모임에 참석한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만든다는 말이다.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애완견 또는 바느질이 될 수도 있다. 커뮤니티 자원봉사 또는 가족 돌보기도 좋다. 뽀글 성취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받는다

가족이나 친구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수 마을에는 서로를 돕고 보살펴 줄 ‘사회 안전망’이 형성돼 있다.

친구와 가족을 초청한다. 그들과 채식 중심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 비슷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자연히 외롭지 않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알코올 섭취

제7 안식일 교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수마을 사람들은 적당한 양의 음주를 즐긴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와 그리스 이카리아는 와인을, 오키나와는 브랜디를 즐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촉진하며 체중 조절도 할 수 있다. 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 과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 있다.

자넷킴 기자 janet@usmetronews.com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걷는 운동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이다.

장수 마을 사람들처럼 오래 살려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운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루 7,000보면 적당하다. 또 주 2.5시간 이상 운동을 적극 권한다.

고기류는 주 1회만 섭취

요즘 고기 값이 많이 올라 고기 먹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장수에는 잘된 일인지 모른다. 모든 블루 존 장수마을에는 주식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고기를 먹는다.

군 예찬론자 모병관 유진 김 상사의 '인생 2모작'

연방정부 세관국경국 요원 유진 김

1면에서 계속 CBP와의 인연

제대 말년 고참 상사 시절 유진 김 씨는 2007년 '칼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의 학생 취업 박람회 '잡 페어' 모병관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CBP 근무 한인의 권유로 CBP와 인연을 맺었다. 감청색 경찰 제복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터라 경찰복과 비슷한 제복이 처음에는 몹시 낯설게만 느껴졌다.

김 씨는 "장로님 같은 그분(CBP 한인)의 거듭된 권유로 온라인 지원서를 내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의 나이 47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서브프라임으로 뒤숭숭하던 시기여서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였다"고 고마워했다.

영어 독해, 수학 등 입사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는 것.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 고득점자부터 채용이 시작되므로 높은 점수는 기본이다. 또 군 출신은 수시 모집도 가능하다고 한다.

김 씨는 군 복무로 인한 5점의 가산점을 받았고 점수도 높아 남들보다 먼저 채용됐다고 말했다. 군이 준 또 다른 혜택이라고 그는 자랑했다.

김 씨는 "군 복무 20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게 되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릴 수 있다"면서 "미군은 제대 후 혜택도 좋지만 또 다른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해주는 인생의 징검다리"라고 강조했다. 그가 근무하는 CBP는 이민 및 출입국자 심사, 화물 통제 및 검사 등 미국 출입국과 관련된 모든 인적 물적 통제 및 검사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그의 근무처는 롱비치 항구로 화물 검사가 주 업무다.

군과의 인연

82년 3월 샌프란시스코로 가족 이민 온 유진 김 씨는 '상향 인력 개발원'에서 만난 한인과 함께 5개월 만에 군에 입대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는 되돌아봤다.

독일과 한국 등으로 거쳐 보스턴 야전 병원 근무 중이던 그는 입대

47세에 도전, 벌써 14년 차 두 아들도 공군, 군인 가족

화려하지는 않아도 나이 든 직장인들에는 "꿈의 엘리트 코스"



방위 산업체 'BAE 시스템스'에 입사해 군속으로 용산에서 근무 중인 둘째 아들 조셉 씨.



LA한인들에게 모병관 김 상사로 더 잘 알려져 있던 유진 김씨가 제대후 미국 세관국경국(CBP) 요원으로 인생 2모작을 일구고 있다. 김씨가 한 학생 취업 박람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진 김씨 제공

10년 차이던 93년 모병관에 발탁돼 LA 한인타운 인근 할리웃 모병소 발령을 받는다. 모병은 만만치 않은 업무다. 입대를 자원해 찾아오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발로 뛰어 입대자들을 찾아야 하는 일종의 세일즈 업무다. 김 씨는 15년간 한인 젊은이들의 미군 입대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미군 입대를 단순한 군 입대로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군은 젊은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2의 사회 진출 교육 센터 역할도 충실히 한다는 것이다.

총 들고 싸우는 전투 병과도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통신, 보급, 의료, 정보, IT 등등 자신에 맞는 다양한 보직을 선택해 교육받고 전문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일종의 '인재 양성소'로 그는 해석한다.

그는 "예전엔 하는 일 없으면 군대나 가라고 했지만 미군이 주는 다양한 혜택과 매력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군을 통해 사회 진출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군 생활을 했다면 제대 후 15년간 풀타임 전역군에게 월 3,000달러를 지원해주는 'GI 빌'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각종 미군 시설과 주택 융자, 심지어는 장기 요양비용까지도 지원해주는 군만의 특혜가 수도 없이 많다.

두 아들도 군 복무

유진 김 씨의 아들 3명 중 둘째와 셋째 모두 공군이다.

대학 1년을 마친 후 입대한 둘째 조셉 씨는 IT 병과의 '사이버 트랜

스퍼' 스페셜리스트로 8년간 군 생활을 마쳤다. 지금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방위 산업체인 'BAE 시스템스'에 입사해 군속으로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다.

셋째 사무엘 역시 대학 입학 1년 후 공군에 입대해 현재는 IT 병과 4년 차로 일본 근무 중이다. 유진 김 씨는 "대학 1년 졸업 후 입대가 가장 바람직한 코스"라고 조언했다.

첫째는 군인은 아니지만 실비치 '네이비 골프코스'에서 근무한다. 이 정도면 군인 가족이라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현재의 CBP와 군을 비교한다면 어디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느냐는 질문에 군인 출신답게 "당연히 군"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어원이 특이한 영어 표현



김연신의
천 냥 빚을 갚아주는
영어 한마디

영어 원어민은 4억 명 정도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5억 명 정도라고 한다. 인터넷 콘텐츠의 60%는 영어로 쓰여있다. 만다린 중국어 사용자가 11억 명에 달하고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어는 아직도 세상에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배적인' 국제 언어 lingua franca(링구아 프랑카)다.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타 언어를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고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외국어 그대로 받아들인다. 단 국제 언어의 자신감인지 발음은 영어식을 고집한다. 영어 사전에 등재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은 한국어 '떡방 mukbang' 은 이제 미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발음만은 [떡방]을 고집한다.

어원이 특이해서 기억하기 쉽고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영어 표현을 살펴보자.

kudos는 명사로 좋은 성과에 따른 칭찬, 영예라는 뜻이고 일상적으로는 "축하합니다, 훌륭하다. 참 잘했네"라는 구어체로도 많이 쓰인다. Congratulations와 거의 비슷하지만 칭찬에 무게가 실렸고 좀 더 색다르게 느껴진다.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전쟁의 영광, 영예라는 뜻으로 쓰인 그리스어 kydos/κῦδος가 어원으로 18세기부터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 칭찬, 영예를 뜻하는 슬랭으로 쓰이며 퍼져나갔다. 192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일상 용어가 됐다. 발음은 그냥 [쿠도스] "Kudos to Dave for the great speech!" (멋진 연설을 해준 데이브에게 축하(칭찬)를 전합니다!)

gung ho는 중국어원으로 열정적인 enthusiastic, 의욕이 넘치는 energetic 의미로 쓰인다. 어원은 중국어 工業合作社(공업합작사)의 준말 工合(공합: 협동조합과 비슷한 단체)이 영어로 편입돼 gung ho[경호, guhng-hoh]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분석된다. David is the most gung ho salesman in

the office. (데이비드는 직장에서 가장 의욕적인 세일즈맨이다.)

이 표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병대 Evans Carlson 장군이 뉴질랜드인 친구에게 중국의 공합 즉 gung ho에 소속된 젊은이들이 협동하며 조화롭게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데서 시작된다. Carlson 장군은 열심히 협동해 팀워크를 키우는 의미로 gung ho를 해병대 구호로 쓰기 시작했고 단어가 군인들 사이에서 퍼져 나갔다. 급기야 1943년에는 할리우드에서 "Gung Ho!"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고 뭔가를 열정적, 의욕적으로 아주 열심히 한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미국에서 통용되기 이른다.

put the kibosh on (something)은 관용구로 stop과 비슷한 말이지만"... 을 예초에 거부하다, 원천봉쇄하다, 절대 반대하다, 진작에 중단하다, 브레이크를 걸다"라는 뜻이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Hard No" 아주 강한 거부 의사다.

kibosh(카이바쉬 정도로 발음)의 어원은 히브리어, 터키어, 켈틱어, 프랑스어 등 설이 다양한데 19세기 초반에 영국 빈민가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에도 kibosh가 등장한다. 최근에는 채찍이라는 뜻의 아랍어 qurbāsh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His mother put the kibosh on his drinking habit.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음주 습관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했다.)

헛소리, 허튼수작이라는 뜻의 malarkey도 어원이 흥미롭다. 발음은 [말라키]. malarkey는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쓰기 시작한 단어인데 어원은 불분명하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사투리라는 설도 있는데 아일랜드 성씨 중에 Mullarkey가 있다고 한다. 또 그리스어 부드럽다/조용하다는 의미의 malakia에서 온 말이라는 설도 있다. 1920년대 어떤 만화가가 일부러 만들어 유행시킨 단어라는 해석도 있다. With all due respect, that's a bunch of malarkey.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건 헛소리투성이네요.)

김연신

UCLA 정치학 전공 TESOL 부전공 / 라디오 코리아, 미주 한국일보 기자 / 영어 관련 블로그, 소셜미디어 그룹 운영.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lesmiles0803>



www.lakheir.org

코로나19로 건강보험이나 의료혜택에 문제가 생기셨나요?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화상담 또는 전화진료도 가능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으로 연락하세요!

이웃케어클리닉은?

-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 한인 의료진 및 한국어 통역서비스
- 진료과목: 주치의 · 부인과 · 소아과 · 치과 · 검안과 · 정신건강 등
- 신속한 한인 전문의 리퍼, 각종 암 검사 제공
- 메디칼 (Medi-cal) 환자 환영, 서류미비자, 저소득층 프로그램 가입 지원
- 일반보험 (PPO, HMO), 메디케어 등 모든 보험 환자 진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만나세요
213.235.2800

(구) 건강정보센터



4년 타고 1만 불 돌려받는다?

전문가칼럼

정대용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



얼마 전 한 손님이 필자가 출연한 레몬법에 관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연락해왔다. 2017년형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딜러를 들락날락했다는 것이다. 차가 오래되고(4년), 마일리지가 높아(7만 마일) 레몬법이 적용될까 했지만, 워런티(10년/100,000마일)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문제라 현대 측과 연락을 취해봤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현대 측에서 처음 7,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제안했고, 이후 몇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1만 달러에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간(warranty)' 이 남아 있고 ▲결함이 '상당하며(substantial)' ▲제조사 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득할 만큼(reasonable)' 수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딜러에서 수리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레몬법에 따라 손님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교환(replacement)' 이라고 해서 동일한 모델의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이때 드는 비용(각종 세금과 등록세, 면허세 등)은 전적으로 제조사 부담이다. 하지만 다시 같은 모델로 바꿔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에 워낙 데서 다시는 같은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제조사에서 차를 되사가는 '환매(buyback)' 가 있다. 손님이 차량 교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돈을 주고 차를 되사간다. 여기에는 계약금, 월 페이먼트 및 남은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제조사는 고객이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뒤 고객에게 지급한다. 가령, '법적으로(statutory)'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일리지 가 1만2,000마일일 경우, 제조사는 전체 금액의 10%를 뺀 만큼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12,000/120,000=10%).

끝으로 제조사는 위에 사례로 든 손님의 경우처럼, 현금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중고차 가격이 높다 보니, 손님들 가운데 현금 보상을 받고, 차는 그대로 갖고 있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조사는 차량이 레몬법 적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부하기도 한다. 차량 결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거나, 딜러 수리를 통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게 제조사가 내세우는 주요 이유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레몬법 적용 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자동차는 점점 첨단 전자 장비, 컴퓨터화되어가고 있다. 반면, 자동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딜러 서비스 담당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몇 번 딜러를 들락날락거려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약 차에 문제가 있다면, 더이상 길에서 시간 낭비하며 속 썩이지 말고 레몬법을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 좋겠다.

▶(213)351-3513, www.alexchalaw.com

'법으로 돕는 남자(法助男)' 정대용 변호사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광고홍보회사 URI Global을 거쳐 현재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 에서 교통사고/상해/레몬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9월까지 2주간 코비드 감염 직원 유급 병가

캘리포니아에서 코비드 19에 감염된 직장인들에게 2주간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임시법이 제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민주)와 주의회는 26일 26일 이상 모든 사업체는 코비드 19 감염 직원에게 최고 2주간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회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80시간(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9월 30일로 만기 소멸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코비드 19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풀타임 종업원들에게 40시간(주 5일 근무 기준)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 또 직원들은 추가 40시간을 위해 양성 반응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은 주당 근무 시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코비드 19 양성 반응이 계속된다면 두 배의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뉴섬 주지사와 앤소니 렌던 주 하원의장(민주), 상원 의장 토니 오틀스(민주)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코비드에 걸린 일선 근로자들에게 유급 병가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비즈니스와 우리 경제가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경제의 중추 역인 스톱 비즈니스가 필요하는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또 검사 인력 증원, 백신 및 부스터샷 확대, 일선 근로자 지원 예산도 추가했다. 또 보건 시스템과 잘

못된 정보 차단을 위한 예산도 함께 확보했다. 미국은 현재 오미크론의 대확산을 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의 결정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피코-유니언 주민들 거리 청소 LA 한인타운 남쪽이 포함된 피코-유니언 주민의회(의장 박상준)가 지난달 29일 길세디오 LA 시의원(1지구) 사무실과 함께 커뮤니티 청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디오 시의원회와 커뮤니티 단체 등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아라파호 스트리트에서 피코 길을 따라 서쪽으로 놀만디 애비뉴까지 도로와 인도를 청소했다. 박상준 의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깨끗한 커뮤니티를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주민의회 제공)





홍기연의 웰빙정보

잘먹고
잘살기

역사적 인물의 명성과 함께 유명세 이어가는 패션 아이템

패션 아이템과 인물

한 세대의 패션 아이콘
인물과 이름 이어받아

켈리, 에르메스 버킨백
구찌의 재클린 백
코코 샤넬의 코코핸들
다이애나의 레이디 디올

패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가방들을 살펴보면 한 세대의 패션 아이콘으로 각광을 받았던 인물들의 이름을 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세상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유명 인물과 그들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각 브랜드의 특별한 가방들을 소개한다.

버킨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가방 중 하나인 에르메스(Hermes)의 버킨백(Birkin)은 영국의 유명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제인 버킨(Jane Birkin)의 이름이 붙여진 가방이다. 60년대 프렌치시크의 아이콘이었던 그녀는 비행기에서 가방을 실수로 떨어뜨리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에르메스 회장 장 루이뒤마가 쏟아진 그녀의 물건들을

주워주면서 그녀에게 잘 열리지 않는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고심 끝에 제작해 선사한 가방이다. 이 버킨백은 현재까지도 모든 여성들이 가장 갈구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가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켈리

할리웃 스타에서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임신 중 이 가방으로 볼록한 배를 가렸는데, 이 모습이 파파라치 사진에 찍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이후 켈리 백(Kelly Bag)으로 불리게 된다. 에르메스 버킨백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인기 가방으로, 원하는 모양과 가죽, 색상의 조합으로는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아이템.

보이 백

브랜드 샤넬(Chanel)의 창시자인 가브리엘 보뇌르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남자 친구의 이름인 '보이' (Boy) 를 붙여 2011년부터 선보인 라인. 버킨이나 켈리와는 달리 단품의 가방이 아니라 샤넬 클래식 백과 함께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라인으로 자리 잡았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출시된 19백 시리즈나 탑핸들 미니 플랩백 등의 '핫' 아이템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지만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등 샤넬의 스테디 라인이라 하겠다.

코코핸들

정식 명칭은 탑핸들 플랩백이지만 가브리엘 샤넬의 예명인 코코 샤



패션의 아이콘으로 사랑 받았던 재클린 케네디의 클래식함과 우아함을 갖춘 재키 1961백은 2022년에도 구찌의 대표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넬의 이름을 딴 '코코핸들' (Coco Handle)로 더 알려져 있다. 2010년대 중반 시즌백(해당 시즌에만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모델)으로 출시되었으나 큰 인기를 끌면서 현재는 클래식 라인과 함께 스테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제키 백

패션 아이콘이었던 미국의 전 영부인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가 즐겨들었던 구찌의 호보백. 레트로가 유행하면서 60년대 출시되었던 재키 백을 새롭게 재해석해 2020년에 다시 내놓은 모델이다. 제키 1961백(Jackie)은 패션의 아이콘으로 사랑받았던 재클린 케네디의 클래식함과 우아함을 갖춘 구찌의 대표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리라지윌

위의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랜드인 토리버치(Tory Burch)가 2019년에 런칭한 리라지윌(Lee Radziwill) 라인도 현재 토리버치를 대표하는 스테디 셀러로 자리 잡았다. 재클린 케네디의 여동생이자 사교계의 명사였던 리라지윌은 패션 아이콘으로 평생 경애를 받았으며, 토리버치는 이러한 그녀

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리라지윌 라인을 런칭했다고 전해진다.

레이디디올

샤넬 클래식 백과 함께 여성들의 최고 로망으로 손꼽히는 가방인 디올(Dior)의 레이디 디올(Lady Dior)은 원래 '슈슈' (Chouchou)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1995년 고 다이애나 왕자비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영부인이 디올에 요청해 이 가방을 선물했는데, 다이애나 왕자비는 선물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공식 석상에 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녔다. 당시 세계 언론의 관심을 한눈에 받던 다이애나의 명성에 힘입어 이 가방도 다이애나 가방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에 디올은 다이애나 왕자비에게 허락을 받은 후, 이 가방을 다이애나 왕자비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레이디 디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후 레이디 디올은 오늘날까지도 디올을 대표하는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홍/서/지/은/기/자

홍(서)지은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 / 라디오 서울·미주한국일보 기자 / 현 공인회계사·슈퍼맘 / 소셜미디어·웰빙 기사 다수 게재



샤넬의 인기 아이템인 탑핸들 플랩백은 가브리엘 샤넬의 예명인 코코 샤넬의 이름을 딴 코코핸들로서 더 잘 알려졌다.



프랑스 고전의 맛 말벵으로 코비드를 막아보자

(Malbec)

개인적으로 말벵 와인을 좋아한다. 특히 아르헨티나 산 말벵이 입맛에 맞는다. 가끔 와인 진열대에서 말벵이 눈에 띄면 반드시 사고야 한다. 가격도 10달러 안팎으로 비싸지 않은 테이블 와인이다.

말벵은 무난한 멀롯과 비교된다. 맛과 향이 유사하지만 멀롯보다 당분은 적다. 와인 그래스 당 말벵의 설탕 함량은 1.5그램에 미치지 못하는 드라이 와인이다. 때문에 도수는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7개국에서 생산된다. 하지만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아르헨티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와인 하면 말벵을 꼽는다.

아르헨티나 말벵은 유럽 및 전 세계 포도나무 멸종의 원인이었던 필록세라 박테리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 프랑스 종이다. 프랑스 고전의 맛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마신다

면 색다른 기분이 들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요즘 프랑스 와인은 순종이 아니다. 1875년부터 1889년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필록세라 박테리아로 거의 사라져 버렸다. 대신 필록세라 박테리아에 강한 미국의 야생 포도나무에 프랑스 것을 접붙여 만든 변종 와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필록세라 박테리아는 미국의 포도 뿌리에 기생하는 진딧물이다.

미국 신대륙 야생 포도는 거칠고 당도도 떨어져 와인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유럽의 와인 생산자들은 유럽 포도나무를 가져와 미국 동부에 심었지만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골드 러시의 붐을 타고 개척자들의 행렬을 따라 재배 환경 좋은 서부 해안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유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말라 죽기 일쑤였다.



와인 생산자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심은 유럽 포도 나무를 뽑아 유럽으로 다시 가져갔다.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미국 야생 포도에 기생하는 필록세라 진

딧물도 함께 프랑스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프랑스 남부를 시작으로 보르도로 확산된 필록세라 박테리아는 그 후 20년간 세계의 유럽 포도 품종을 초토화시켰다.

결국 농학자들은 진딧물에 강한 미국 야생 포도에 유럽 포도를 접목시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진딧물 퇴치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포도나무 초토화 사태의 비극을 피한 곳이 칠레와 아르헨티나다. 지리적으로 격리된 남반부 끝자락의 칠레에는 이 필록세라 박테리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역시 선교사들의 내수용 와인만 생산하면서 유럽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덕분에 역시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말벵은 프랑스 품종이다. 1850년대 이미 선교사들이 까다로운 말벵의 재배를 아르헨티나의 고산지대

에서 시작했다. 유럽에 필록세라 박테리아 침공 이전의 일이므로 고스란히 프랑스 포도의 맛을 간직하고 있을 게다.

접붙이지 않은 포도나무, 프랑스 고유의 고전 와인의 맛을 원한다면 칠레 와인을 마셔 보라. 그중에서도 짙은 향에 풀바디의 도수 높은 와인을 원한다면 아르헨티나 말벵을 권한다.

레드 와인을 하루 1잔 또는 2잔씩 마시면 코비드 감염 위험을 10~17% 줄인다고 한다. 중국 의사들이 영국인 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화이트 와인은 주당 5잔 정도 마시면 7~8% 줄이지만 맥주나 사이다를 자주 마시면 오히려 28% 높인다고 한다. 말벵 와인도 마시고 코비드 19도 막아내는 일석 이조가 될 것 같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도하고 건강한 생활을 선도할 US메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희망을 안겨주는 정론지로서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K O A M
CONSTRUCTION, INC.

(213) 380-4588

4329 Briggs Ave, Montrose, CA 9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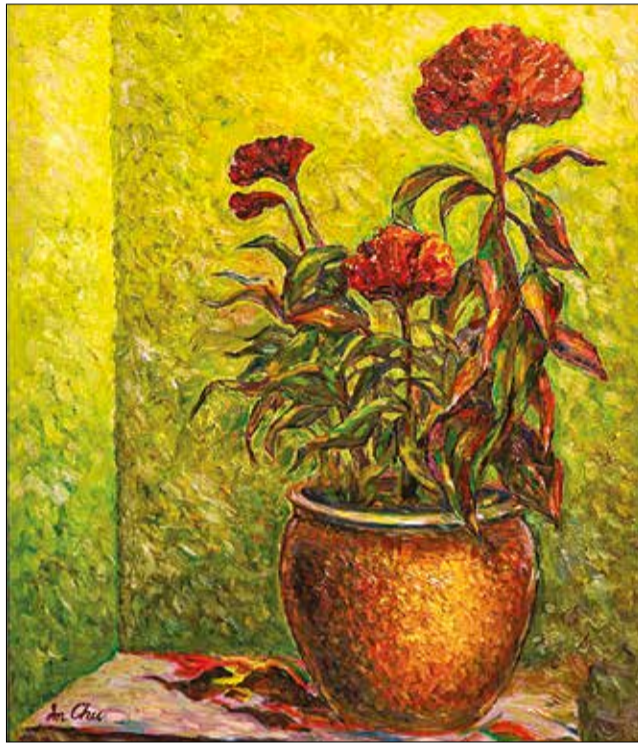


이경수 작가
KCC(Kauai Community College, HI) 미술과 교수 역임. (현) Gallery KLBT Art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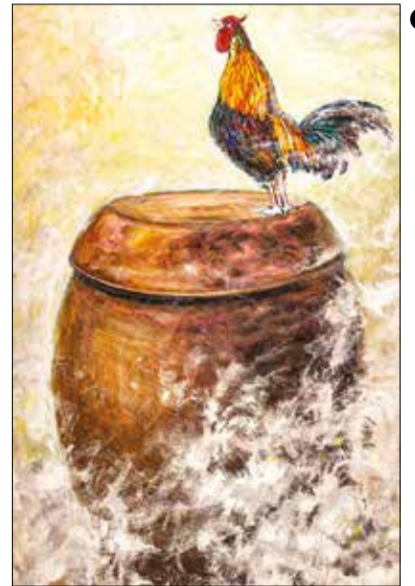
“어릴 적 작은 소녀가 보았던 세상”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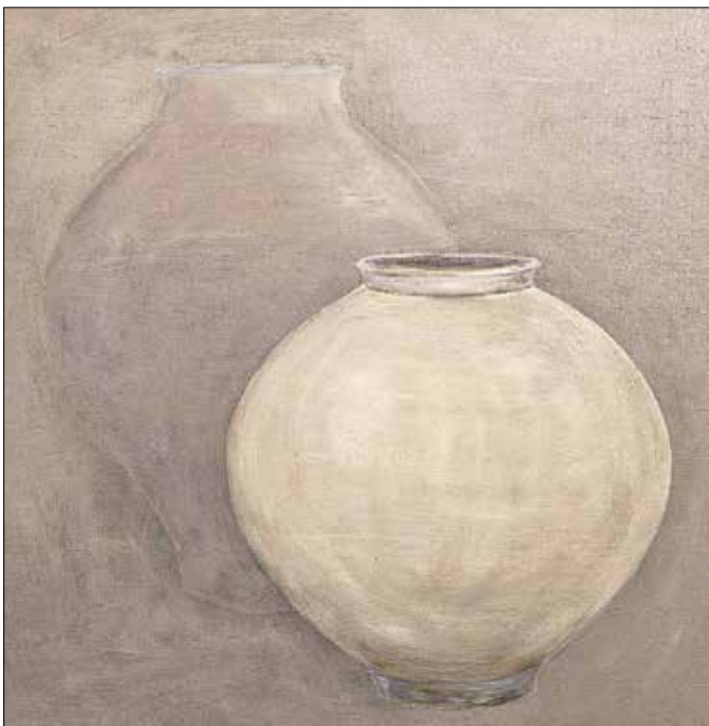


5

- 1 On an Autumn Day.
- 2 Snow of Flowers.
- 3 Into Memories II.
- 4 The Cockscomb.
- 5 Dawn.



2



3

주정미 개인전

‘기억 속으로’ 첫 개인전
리앤리갤러리에서
2월 5일~12일까지

주정미 작가의 ‘기억 속으로’ 첫 번째 개인전이 리앤리갤러리(이 아네스)에서 2월 5일부터 12일까지와 오렌지카운티 바우하우스 갤러리에서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 열린다.

효성여대에서 섬유공예 디자인을 전공한 후 그동안 패션 관련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의류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녀는 오랜 시간 하고 싶었던 ‘그림’의 세계에 조심스레 도전하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늘 마음 한구석 가보지 않았던 길을 그리워했음을 고백하는 작가는 회화의 세계에 입문하며 진정한 ‘나를 찾는 일’에 설렘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녀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차분하게 우리를 오래된 기억 속으로 안내하며, 지나온 세월의 추억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 때론 그리움과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릴 적 작은 소녀가 보았던 세상, 그때 느꼈던 설렘과 벽찬 감정이 되

살아났습니다. 제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헛헛한 나와 마주하는 순간... 그것이 그림의 시작입니다” 작가의 설명이다.

팬데믹 시기에 세상의 단절된 두려움을 겪으면서 창작된 그녀의 작품들이 관람자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편안함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전시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 ▶일정: 2월 5일부터 12일
- ▶문의: (213)365-8285
- ▶장소: 리앤리갤러리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 ▶리셉션: 2월 5일(토) 오후4~7시
- ▶장소: 바우하우스갤러리 1251 S. Beach Blvd. #C La Habra, CA
- ▶일정: 2월 15일부터 22일

알립니다

시니어 미술 공모전 3월 18일까지 마감 연장

리앤리 갤러리가 주최하는 제1회 시니어 미술 공모전이 코비드 19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부득이 마감을 3월까지 연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당선작은 본보 4월호를 통해 발표됩니다.

참가자격은 인종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그림에 열정을 가지신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대상과 1·2·3등, 입선작으

로 대상작에는 1,000달러의 격려금이 지불됩니다. 입선작은 리앤리 갤러리에 전시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그림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멋진 추억을 남겨줄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인종 커뮤니티에서 응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전을 후원해주시는 농심 USA, 서울 메디컬

그룹, 재미한국노인회, 선데이저널 USA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작품 주제: 나에게 소중한 시간(My Memorable Time)
- ▶작품 규격: 캔버스나 종이(18×24인치)
- ▶미디어: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믹스드 미디어
- ▶작품 제출: 리앤리 갤러리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 ▶문의전화: (213)365-8285 이 아그네스

갤러리 소장 작품 전시

리앤리갤러리 상설전

회화 포함한 3D 작품들
2월 15일~26일까지



2월의 두 번째 전시회로는 리앤리갤러리의 상설전시회를 소개한다. 그동안 갤러리에서 소장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회화를 포함한 3D 작품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별히 글래스작품들이 눈에 띈다. 다른 장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글래스 아트의 영롱하고 투명한 화려함은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황홀하게 한다.

빛의 반사에 따라 수많은 컬러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색다른 감상법이 되며 섬세하게 표현된 정교함은 글래스아트만이 갖을 수 있는 매력이 된다. 시애틀 출신 작가인 캐런 윌린브링크의 작품은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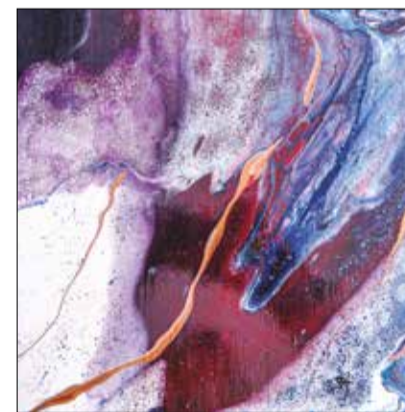
을 소재로 다룬 것들이 많은데, 새와 꽃을 아름답게 구성하여 제작한 작품들은 우리가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신선하고 상큼하다. 그 외에도 브라이언 브레노, 캔트 켈런 작가들의 글래스아트 작품들도 각각 색다른 제작과정과 개성있는 표현으로 제작된 작품들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림과 함께하는 글래스아트의 조합은 조금은 답답한 이 시기에 마음의 위안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일정: 2월 15일부터 26일
▶문의: 리앤리갤러리 이아네스 (213)365-8285



캐런 윌린브링크 작품.

영혼의 고향, 알래스카의 자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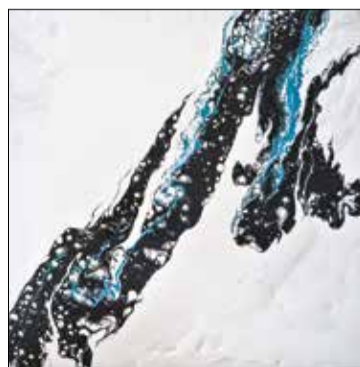


수잔 황 개인전

갤러리 두아르떼 대표
‘물길’ (Water Way)전
3월 5일~19일까지

사진작가이며 화가이고 갤러리 두아르떼 디렉터이며 대표이기도 한 수잔 황 작가의 개인전이 3월 5일부터 19일까지 갤러리 두아르떼에서 열린다. ‘물길’ (Water Way) 이란 전시회 타이틀로 선보일 이번 작품 전에서는 그녀에게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알래스카의 자연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년전부터 그곳을 오가며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품을 해왔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밀물과 썰물



이 반복되는 조류의 현상을 보면서 물길이 이루는 우주의 위대한 섭리와 자연의 순리를 깨달으며 제작된 작품이어서 의미가 크다. “밀물과 썰물 때마다 이승과 저승을 연출하는 신비로운 검은 바다가 몽환의 회색 하늘과 맞닿아 있다. 사계절의 물길이 다르고, 우리 삶의 가슴속 번뇌와 번덕도 그와 다를 것이 없다” 수잔 황 작가는 조류 속에서 인생의 단면을 보았고, 우리의 인생도 자연의 순리대로 태초부터 물길을 따라

흐르는 ‘그곳’을 그리워하며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아크릴과 믹스드미디어 작품 30여 점과 판화 등을 선보일 수잔 황 작가는 아트센터에서 회화를 공부했으며, 개인전 4회 아트페어 등에 참가했으며 현재는 남가주 미술가 협회와 가톨릭 미술가 협회를 통하여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정: 3월 5일부터 19일
▶장소: 갤러리 두아르떼 4556 Council St. L.A, Ca 90004

24시간 오픈



US매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도심에서 찾은 완벽한

스킴포

당신의 완벽한 휴식을 위한 섬세한 노력들
작은 디테일이 모여 클래스가 됩니다
클래스의 차이가 회복의 차이를 만듭니다

잠깐으로도 충분한 휴식

24시간 오픈

동서사우나

RE GRAND OPENING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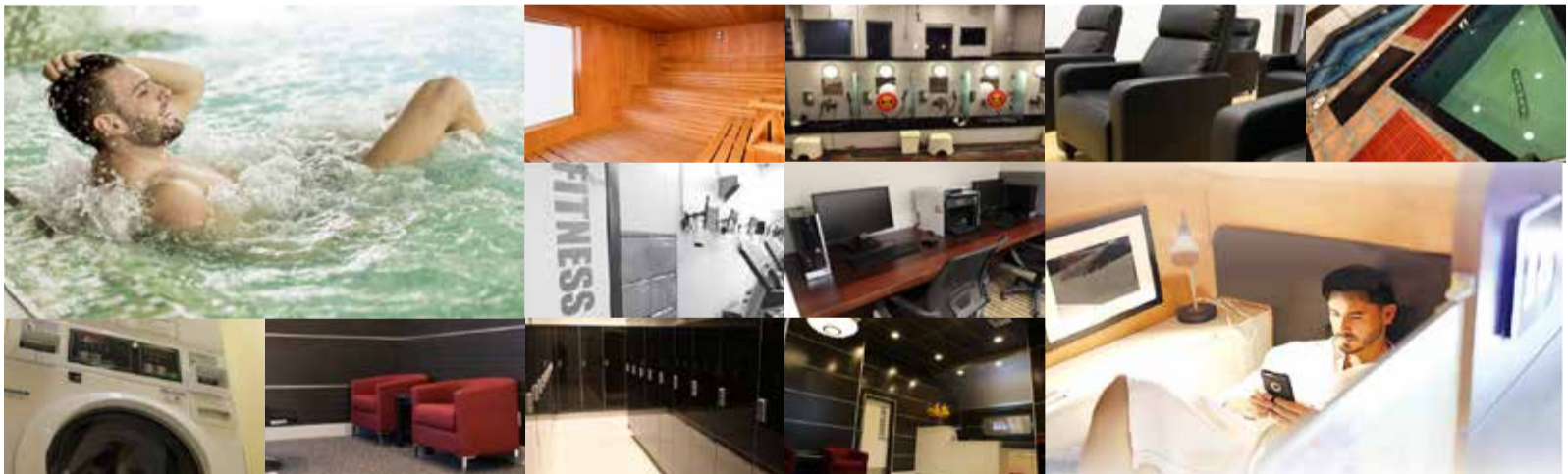
다시 뭉친 베스트 멤버 명품지압 • 한층 업그레이드된 어메니티 • 건강한 휴식을 위한 완벽방역

\$20

9AM~9PM / 9PM~9AM
\$10추가시 개인 취침실 제공

LA스파텔 야간만 이용시 \$30

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쉬고 주무세요



지압의 명가



9th Ave

동서사우나

San Marino

Western

323.840.2035



laspatelus.com



901 S. Western Ave. LA, CA 90006 코리아타운 플라자 건너편

온라인 1회 이상 방문자 2만5,000명 돌파

본보 웹사이트 usmetronews.com (wellbeingsus.com) 방문자가 매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간 1주년을 앞둔 지난 1월 한 달간 1회 이상 방문자가 2만5,000명을 넘었습니다. 1회 방문하신 독자분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5월 정식 오픈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이며 지난해 12월 7,300명에서 불과 한 달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방문자 수입니다. 신생 언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성장이라고 자부합니다.

본보 웹사이트 메인 서버인 '블루호스트'의 월별 접속자 통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방문하신 분들이 웹사이트 기사를 보신 페이지수는 13만 페이지로 방문자 한 명당 5.14 페이지로 기록됐습니다. 또 방문하신 후 웹사이트의 메뉴를 클릭하고 기사를 검색한 숫자만도 166만 건이 넘습니다.

본보 웹사이트는 지난 5월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당시 첫 방문자 수는 212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6월과 7월 800과 900명으로 늘어났다가 8월부터 매달 500명씩 방문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11월 3,000명에서 12월 7,452명으로 4,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1회 이상 방문 독자는 9,652명, 열람 페이지수는 5만 3,000, 클릭 수는 57만5,0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 1월 들어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접속 지역도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과 캐나다에 이어 멀리 일본과 유럽에서도 인터넷 독자분들이 접속

하고 있습니다. 본지 US메트로뉴스는 생활 정보 가이드입니다. 미국의 사회 보장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은퇴 플랜, 여행, 보험, 건강, 여행, 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발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일간지 기자로 활약했던 막강한 필진들이 꾸미는 칼럼의 인기도 대단합니다. 이경수 미술가의 미술 이야기를 비롯해 김동희 시디스 사이나이 병원 암센터 수석 코디네이터의 '건강' 칼

5월 오픈 이후 폭발적 성장 자부 올 1월 무려 3배 급증

지역도 미국, 한국, 일본 유럽, 호주 등 접속

럽, 유명 블로거 홍지은 CPA의 '웰빙' 칼럼,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 안내와 김연신 소셜미디어그룹 대표의 '영어 한마디' 등등 다양한 전문 필진들이 꾸미는 유익한 읽을거리도 가득합니다.

박상철 화가가 매일 전하는 '오늘의 역사'와 지남철 만화가의 '그림 이야기'도 많은 온라인 독자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US 메트로 뉴스를 사랑해주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수 시대에 걸 맞는 더 좋은 웰빙 기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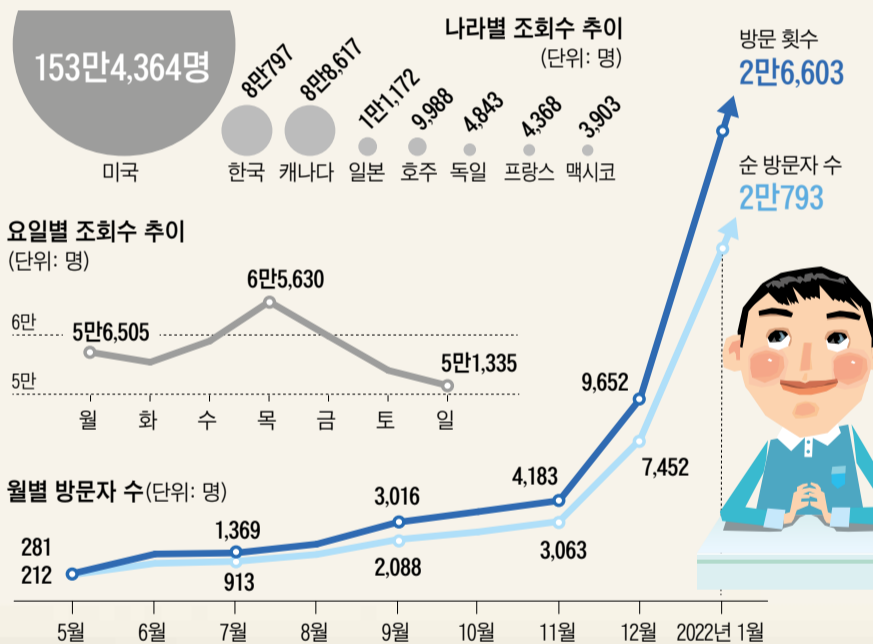


US메트로뉴스 홈페이지 방문자 수(1월 기준, 단위: 명)

순 방문자 수	방문자 수	페이지뷰	조회수
2만793	2만6,603	13만7,216	176만7,635

본보 칼럼 필진

- 김동희의 **세계살기** (시디스 사이나이 병원 암센터 수석 코디네이터)
- 홍지은의 **웰빙정보 잘먹고 잘살기** (세이브 세이비티 칼럼니스트)
- 김연신의 **영어 한마디** (전 남빛을 끌어주는 영어 한마디)
-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가칼럼** (정대용 변호사, 알렉스 사법연구소 대표)
- Culture & Art **오늘의 역사**
- 지남철의 **그림이야기**



생존 배우자 연금도 소급 지급되나

Q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최근 죽었다. 나는 아직 소셜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사별 생존 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을 신청해야 하나. 만약 신청한다면 남편이 죽은 날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나.

A 우선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생존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났다면 소셜 시

큐리티 사무국 800-772-1213으로 연락해 가능하면 빨리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라. 소급은 보통 사망한 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1년 전에 사망했다고 해도 소급 액은 신청 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소급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나이가 60세 이상이지만 아직 만기 은퇴 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지금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다면 그만큼 연금을 깎아서 지불된다. 정리한다면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일반 연금처럼 신청 나이에 따라 일정 연금이 제해져 지불된다. 이 연금이 평생 받는 연금이다.

만약 노년을 대비한 장기 대책을 원한다면 만기 연령까지 기다렸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62세가 넘었고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연금부터 받고 만기 은퇴 연령에 될 때 생존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신청하면 된다.

일반 배우자 연금은 5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만 이 방법이 가능하지만 생존 배우자 연금은 태어난 해에 관계없이 나중에 바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이 죽은 배우자의 것보다 많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우선 죽은 배우자의 연금을 먼저 신청해 받다가 70세가 되면 자신의 것으로 바꿔 신청하면 된다. 물론 70세에 받는 돈이 배우자 연금 보다 많을 때에 해당한다.

한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도 받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2022년 기준으로 연 소득 1만9,56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달러당 1달러씩 지급되는 소셜 연금에서 제해지고 지불된다. 제해진 돈은 만기 연령이 지난해부터 연금에 가산돼 지급된다.

자동차 보험

사소한 교통 위반 티켓도 자동차 보험료 올린다

미국 평균 35% 보험료 인상 요인 속도위반으로도 연 422달러 올려 가주, 하와이 등은 크레딧 점수 반영 못 해

자동차 보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 있다. 교통위반 티켓이다.

교통위반 티켓 한 장이 평균 자동차 보험료를 35% 끌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회사 '이슈리파이' (Insurify)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미한 자동차 티켓조차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속도위반 티켓은 다음 보험료 산정 때 연간 422달러를 올리게 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연간 723달러 인상의 음주운전에 비교해봐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교통 위반 티켓이 보험료에 얼마나 반영될까.

보통 기록이 좋은 사람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483달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자.

빨간불에서 정차하지 않아 티켓 받았다면 보험료는 1,891달러로 뛰어 오른다. 속도위반을 했다면 1,905달러로 오르고 스톱 사인 위반은 1,919달러다.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다음 보험료는 연 2,005달러이고 운전태만시 2,070달러, 스쿨버스 스톱 경고를 무시했다면 2,192달러 경중 쫓겨 된다. 난폭 운전은 2,192달러, 남의 차를 바짝 뒤쫓아 가다 걸렸다면 다음 보험료는 2,206달러를 각오해야 한다. 가장 많은 보험료가 오르는 위반은 역시 음주 운전으로 2,916달러 보험료가 된다.

보통 운전 기록이 나빠지면 다음 해 보험료 산정 때만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사고일 경우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에 청구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월 보험료 인상에 반영된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는 교통 위반을 했어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인슈리파이'의 탄빈 보라 보험전문가는 "보험료는 운전자의 위험도를 근거로 책정된다"면서 "이 운전자의 위험도란 사고로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일종의 프로파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향후 언젠가는 난폭 운전을 할 수 있으며 결국 사고로 인한 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주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교통 위반을 운전 기록에 반영시킨다. 보험사들은 이런 운전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월 보험료 인상에 합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다음 갱신 때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음주운전 같은 심각한 교통 위반은 특히 보험사가 주시한다.

이런 교통 위반 기록은 종류에 따라 10년까지 유지된다. 벨류팩킹 보험사에 따르면 속도 위반 티켓은 3년간 유지되지만 음주운전은 10년 또는 주에 따라 그 이상 기록이 남을 수 있다.

보험료 인상 요인들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한다.

회사마다 중점을 두고 고려하는 요소들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사고 배상 청구한 기록을 인상 요인으로 비중 있게 반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 ▲성별 ▲주소 ▲자동차 모델 및 제작사, 제작연도 ▲자동차 사용 및 주행거리 ▲교통 위반 기록 ▲사고 기록 ▲이전 보험사 기록 ▲크레딧 점수를 보험료 책정에 반영한다.

하지만 하와이는 나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 또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7개 주는 남녀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워싱턴 등 5주는 크레딧 점수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나쁜 크레딧 점수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 5개 주를 제외한 미국 내 각 주에서 크레딧 점수를 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크레딧 점수가 오히려 교통 위반 티켓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인슈리파이'에 따르면 ▲적당/나쁨(Fair/poor) 300~600점: 2,378달러 ▲보통(Average) 601~660점: 1,919달러 ▲ 좋음(Good) 661~780점: 1,640달러 ▲우수(Excellent): 781~850점: 1,540달러이다.

하지만 인터넷 경제 사이트 '뱅크레이'에 따르면 나쁜 크레딧 점수는 평균 보험료를 3,873달러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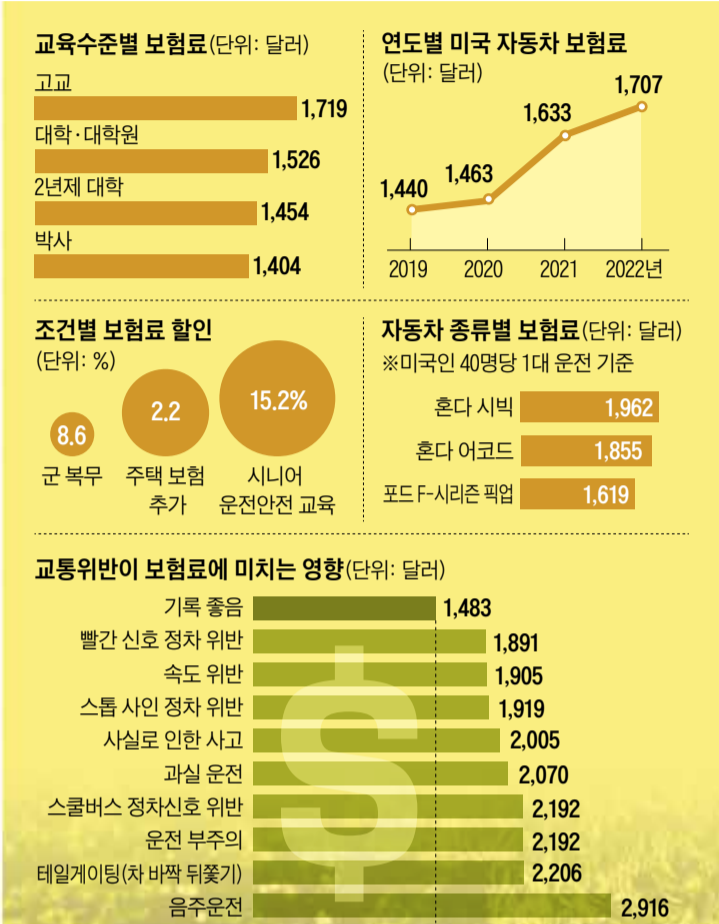
운전 기록이 양호하다고 해도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면 보험료는 더 비싸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 옹호 단체들은 자동차 보험료 산출에 크레딧 점수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 정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실제 운전 습관보다는 크레딧 기록을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의료비용으로 파산을 했던 운전자를 나쁜 운전자로 몰아갈 수는 없으며 더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야 어떻든 일반 자동차 보험료를 적게 내려면 운전 기록과 함께 자신의 크레딧을 잘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존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의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45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US메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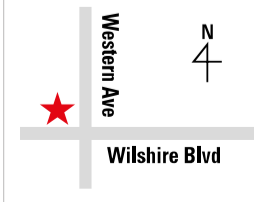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45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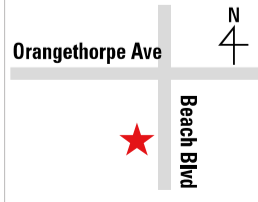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한국과 미국은 정수기와 우물의 차이?



김동희의
세상보기

시더스 사이나이 암센터
수석 코디네이터

현재 일하고 있는 건강형평성연구소에 합류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다. 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인종별로 일부 암 검사율이 낮은 부분에 주목했다. 과거 진행된 여러 연구에선 한인들의 유방암 검사 비율이 타인종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팀원 중 유일한 한인이다 보니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미국 의료시스템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한국에선 병원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한국은 건강보험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보험비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 없는 한인 이민자들도 많습니까.”

미국의 복잡한 의료 탓, 비싼 건강보험 탓을 했다. 진짜 이유는 몇 달 뒤에 찾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암 인식과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

“왜 한국 사람들은 암 검사를 잘 안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시한 것이다. ‘암 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프지 않아서”가 1위를 차지했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보험이 없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아프지 않고, 시간도 없는데 굳이 병원에 가야 하나, 한인의 한 사람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과였다.

하지만 문제는 아프지 않고, 시간도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잃는 것들이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다. 조금 더

한국 vs 미국 암 검진 권고 기준		
암 종류	한국	미국
유방암	40세~69세: 2년 마다 유방촬영술	45세 이상~55세 미만: 매년 55세 이상~기대수명 10년까지: 1~2년마다 유방촬영술 (매모그램)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3년 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최근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5세 이상에서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음	21세~65세: 3년 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펩 테스트) *최근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66세 이상에서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음
대장암	45세~75세: 매년 분변잠혈검사 또는 10년마다 대장내시경	
폐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금연 후 15년 경과한 흡연자는 제외) 55~74세 고위험군: 매년 저선량 흉부 CT	
위암	40세~74세: 2년 마다 위내시경	정기검진 선별검사 기준이 없음 (자세한 정보 원하면 주치의 상담)
간암	40세 이상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화증 진단 받은 자는 6개월마다 간 초음파+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정기검진 선별검사 기준이 없음 (자세한 정보 원하면 주치의 상담)
갑상선암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인 선별검사로는 권하지 않음	정기검진 선별검사 기준이 없음 (자세한 정보 원하면 주치의 상담)
전립선암	7대암 검진 권고안에 속하지 않음	50세 이상: 매년 PSA 혈액검사+수지 직장검사

일찍 병원에 가면, 조금 더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있다. 유방암은 여성 8명 중 한 명에게서 발병할 정도로 흔한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5년 생존율은 90% 이상에 이른다. 정기검진과 조기발견만이 답이다.

미국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 제도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기와 우물을 생각한다. 한국의 편리한 의료제도가 집에 있는 정수기라면

미국의 의료제도는 저 멀리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쯤 된다. 집에서 정수기 물을 편하게 먹다가 미국에 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물로 매번 물을 뜨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귀찮고 힘들지만 정수기 편하게 사용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불평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말이다.

미국과 한국은 암 검사의 경우 권고 기준(표 참조)도 다르다. 양국의 차이점을 바르게 알고, 내 건강은 내

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2022년 정기검진 예약부터 하기 바란다. 정기검진은 원래 아프지 않을 때 받아야 하고, 병원 갈 일도 원래 없으니 일부러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2022년을 기대한다.

김동희
현재 시더스-사이나이 암센터 건강형평성 연구소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수석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 전 미주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자. ‘미국엄마의 힘’ 저자.
▶ 연락처: (310)423-7410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13)

Pathologist 병리학자 (패탈로지스트)

병의 원리를 밝히기 위하여 병의 상태나 병체의 조직 구조, 기관의 형태 및 기능의 변화 등을 연구한다. 병을 일으킨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의 기질적 변화 및 기능적 변화를 연구한다. 암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하면 후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알려준다.

Cytologist 세포학자 (사이털로지스트)

세포의 형태 및 기능을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의 학자를 말한다. 세포학은 형태학, 생리학, 생화학, 발생학, 유전학을 비롯해 진화 등 많은 분야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Hepatologist 간 전문의(헤파톨로지스트)

간 전문의는 간, 담낭, 담관 및 췌장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 치료 및 관리하는 의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간경변, 지방간 질환 및 간염과 같은 질병은 증가하고 있으며, 때문에 간 전문의의 활동은 매년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Hematologist 혈액학자 (헤마톨로지스트)

혈액과 혈액을 형성하는 조직과 이련 조직과 연관된 병에 관한 학문을 혈액학이라고하며, 혈액과 혈액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혈액학자라고 한다.



창간 1주년
US메트로뉴스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지금 CBB와 이야기하세요!



| 상업용 부동산 구매 | 사업체 인수 | 장비 구입 | 운영자금 대출 |

IT'S **cbb** SBA TIME

SBA, 지금 바로 CBB Bank와 시작하세요!

스몰비즈니스의 모든 것-
그 성공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Your Business Banking Partner





까끌까끌 메밀면,
 알싸달달 **양념장!!**
 시원하게 즐기세요
 메밀막국수

